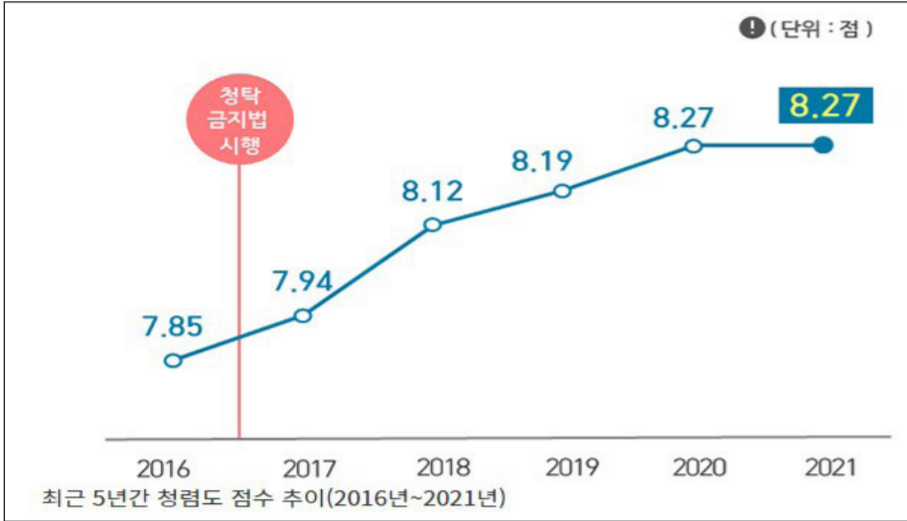


## 권익위, 공공기관 592곳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 해보니

최종건 1차관, 제4회 서울아프리카대회 환영사

교육청 점수 가장 높고 부동산 관련 업무수행기관 상대적으로 낮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공직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인식 항목 등을 신설했다"면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 측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이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경험률을 보였고,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은 0.23점으로 전년 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편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 종합청렴도 점수가 8.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는 8.03점으로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다.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기관의 청렴도는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이 권한·재량의 크기와 정보 중요도 등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

단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아 취약했다.

기관별 부패 위험도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소속 기관의 부패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

또한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

구분	권한의 크기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 중요도	업무관련 사적이익 실현	퇴직자 재취업
공직유관단체 전체	4.61	5.29	5.05	2.19	4.20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	4.90	5.44	5.26	2.24	4.38
지방 공사·공단	4.88	5.49	5.36	2.34	4.27
광역 산하	4.89	5.36	5.60	2.01	4.38
기초 산하	4.88	5.63	5.08	2.70	4.15
그 외 공직유관단체	4.91	5.37	5.14	2.13	4.52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	4.50	5.24	4.97	2.17	4.13

※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음(부정적)을 의미  
 내부청렴도 부패위험도 항목(참고항목) 비교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인 58개 지방 공사·공단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점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패사건 감점 적용대상 사건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부패행위로 감점 기관당 평균 감점이 0.50점으로 모든 기관유형 중 가장 높아 취약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전년대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0.01점 상승했으나 기관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개선 폭은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신설된 외부청렴도의 공직자의 갑질행위 경험률에서도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하는데, 기존의 정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 지표, 결과·등급 산정방식도 그간 각급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통합 평가체계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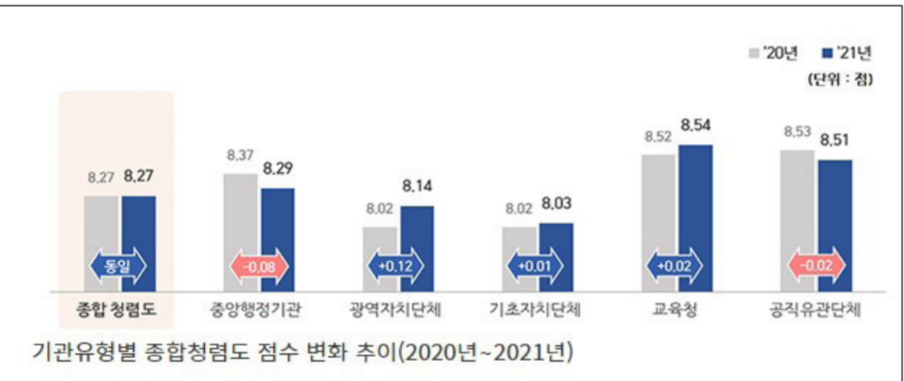
더불어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 평가과(044-200-7632)

최광수기자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최만식기자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대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과 조사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 0.4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

하지 않는 기관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았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다소 높았는데,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는 비교 유형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으나 내부청렴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직원들은 스스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공

## 2021 겨울방학

#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

**전시 프로그램** 북어생태전시/물속친구들의 생존전략/세기의 복(福)

**체험 프로그램** 방울방울놀이터/모래놀이터/풍선컬링/북불북게임

**2021.12.25 토 ~ 2022.2.2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30분 (매주 월요일, 성탄일 휴관 1월31일 정상운영)

###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 행사 참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주최·주관 남원시 | 후원 산림청 | 문의 : 063-620-5752~4





politics

정치 I

2 문화매일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 박재호, 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 지원·육성법 국회 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총 6개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산업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 및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방재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재난안전기술이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세계적인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 관련 기술·제품 등의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사업체 수 약 7.1만 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가 51.1%, 5억 미만 사업체가 48.1%

박 의원은 “제정안 국회 통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이 마련되어 국가의 안전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궁영기자

## 김민철의원, 2021년 정기국회 큰 성과 이루며 마무리!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도 국정감사,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에 힘쓰며 ‘일하는 국회’를 묵묵히 구현하였다는 평가 속에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12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 정기국회가 끝이 났다.

김민철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문제를 집중 조망하며 ‘정책 국감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 활동 자유의 보장을 촉구하였고, 항만 대기질 오염 문제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

이러한 김민철 의원의 활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선정한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 시사뉴스와 수도관일보가 주관하는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리고 2021 서울 평화문화대상 의정부부문 평화문화 대상에 선정되며 4관왕을 기록마무리 했다.

또한 김민철의원은 정기국회 기

간 동안 대표 발의법안 8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정부 질문을 나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쳐 나갔다.

9월14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주한미군 공여지 오염 정화,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 구축, 차질없는 백신 수급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에 집중 질의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 금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제 잔재 법률용어를 청산하는 개정안 3건, 그리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 법률용어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등 5건의 법안이 9월 28일 통과된 데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지방산업단지들과 농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올해는 2022년도 예산으로 1,702억 5,800만원을 확보

하였고, 본예산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상반기 16억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1억원을 확보했으며, 교육부 특별교부세도 17억 7,5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축 예산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강력한 요구를 해 예산 증액을 이뤄냄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김민철 의원은 2021년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천명을 넘는 심각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의정부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성심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세수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구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차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시·군·자치구에 각각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양시현기자

담고 있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 무질서 등을 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수가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경륜·경마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많은 불편을 감안할 때 레저세를 더욱 많이 배분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사행산업 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경마·경륜 장 분장이 있는 시·군·자치체에 대해서도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홍성국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4건 통과! 올해 16건 법안 통과로 ‘입법 성과도 착착’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제당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와 임팩트제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 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최재은기자

**2021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법안**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도록 함
- 프랜차이즈 갑질 소상공인 보호법**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갑질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지방세 탈루 근절 금융정보 활용법**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탈루 목적의 은닉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제당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
- 불법 계약에 따른 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 계약에 따른 불법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감염병 위기시기 고령자 지원법**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 감염병 위기시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법** (예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 인권위 권고 이행력 강화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위 권고 이행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군사기밀 유출자 유증자 처벌법**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유출자 유증자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 홍성국

## 김태흠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법률안 통과



김태흠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률안은 김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제1호 법안’으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kWh당 0.3원인 화력발전세율은 2024년부터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 화력발전세 세율은 연간 73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서천군은 21억원에서 4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충남도의 경우도 366억

원에서 732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당초 개정 세율을 1원으로 정해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명수·배준영·이기구·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 조정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방지, 주민 건강권 확보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이 인상된 것에 뜻 깊게 생각한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2014년도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인상 법률안을 발의해 kWh당 0.15원인 것을 0.3원으로 2배 인상 시켰으며 이번 세율 인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정근기자

## 임이자 국회의원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인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

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용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재기자

## 송옥주 의원,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 달성을 위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0일, 한국여성정의당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를 달성하였다. 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를 달성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광역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19.4%, 광역자치단체장도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0%,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례대표 중심의 여성공천을 넘어 지역구로의 여성공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3법 중 가장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공천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추천 시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기초의회 의원에게만 여성공천을 몰아줄 수 없

도록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각각 1명 이상씩은 반드시 추천하도록 개정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여성 확대를 위해 10% 이상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개정하고, ▲여성후보 추천 의무를 위반한 등록은 무효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현행 30% 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한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여성추천보조금’을 40% 이상 공천 시 지급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기준이 모호하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여성정책 공모나 여성후보자 선거지원 경비, 여성정치인 발굴 등 구체적으로 용도를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당법」 개정안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과 여성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성평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의제”라며,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전환의 해이다. 더 많은 여성의 참여로 보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선에이스트 701호

발행, 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통 선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 202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환영!

황인구 의원,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복지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앞으로 Non-GMO 식재료 확대 등 학교급식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시구정장협의회(회장 이성)의 합의로 지난 8일 체결된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관내 790개 공·사립 유치원 전체에서 무상급식이 전개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상급식이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다.

황인구 의원은 그동안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 부담 비율 결정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부서 간 입장을 중재·조율해왔고, 유치원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개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공로로 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할 정도로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완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금번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

음 시행한 이래 서울의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유아교육을 비롯해 공교육 전반에서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고, 특히 “학교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및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사용 확대, 영양·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급식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 서울시 공·사립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등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다.

황인구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politics 정치 II

문화매일 3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 경기도시장군수협, 9회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특강·컨설팅 실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광상욱)에서는 지난 9일, 민선7기 협의회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컨설팅」 9회차를 맞이하여,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시에서 실시했다.

광명시 주민자치위원회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읍면동별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장을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자치와 참여, 그리고 정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진심인 박승원 광명시장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박시장은 특강에서, 내가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웃과 이야기하고 어떻게 관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나 하는 관점에서 '자치'없는 민주주의도, 지역발전도, 내 주권도, 내 삶을 바꿀 수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어느때보다 격이 없이 소통하며 강의하는 열정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2세션은 주민자치위원 약 60여명이 9개팀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외부전문가(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 방안, 향후 추진사업 발굴 등 다양한 주제 발굴과정과 설문기사를 체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과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마을의 '인적자원 발굴'을 주제로 한 팀에서는, 팀내 00미위원의 주민자치 가입 당시 예를 들며 “평소 막연하게 주민자치는 마을에서 권위있고 재력있는 분만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되더라,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발굴해 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발상으로 “00미 찾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실행방안으로 ‘누구나 분과위원회 참여’ 및 ‘주민자치 맞보기’ 행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참여 위원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주민자치회원은 “뻔한 교육일거라 생각하고 기대없이 참여했는데, 이 안에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보았다며, 향후에는 전 주민자치회원이 참여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할 아이디어 발굴 등 심도있는 의견과 소통을 나누는 실질적 경험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광상욱협의회장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주민자치 행동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기존 역할을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역 의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다수의 평범한 주민이 모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량을 보며, 여러분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혜영/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Ⅳ,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 개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Ⅳ(대표 남홍숙)」는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컨벤션홀에서 김기준 의장, 백군기 시장, 조효상 용인시체육회 회장, 오상준 용인시관광협회의 회장 등 체육 및 관광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김중현 용인대 교수를 좌장으로,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 명성광 재남무술원 이사장, 위장량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사무총장, 이상원 경기저널 대표, 신성수 용인시 교육문화국장 등이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이어갔다.

남홍숙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공직자·관계자를 모시고 용인만의 특색을 가진 체육 관광 모델이 무엇인지 함께 소통하고 모색해보는 대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며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값진 성과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수 교육문화국장은 “용인은 용인축구센터, 미르스타디움,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풍부한 관광 및 체육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원을 연계한 청소년 테마파크 구축 및 집적화된 체육 시설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며 보완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기저널 대표는 “용인시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가 장점이자 단점이다. 용인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관광 마스터 플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중현 용인대 교수는 “용인시는 40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러한 관내 기업과 협조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은 양구시 스포츠마케팅팀을 예로 들며 “체육 분야의 예산 투입이 밑바탕 되어야 체육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명성광 재남무술원 이사장은 “1~2일 단기성 대회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흡하다. 예절교육 등

컨텐츠와 연계해 체류할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장량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사무총장은 “경기 중심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용인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포츠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스포츠 관광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해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토론회 주최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용인Ⅳ」는 남홍숙(대표), 이창식(간사), 박만섭, 윤원근, 윤환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용인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쌀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올해 27만 톤 과잉생산에 농가 쌀값 하락 우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해위 소속 김영권·김기서·김득음·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일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만 344원으로 1만 6868원 떨어졌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은 5% 이상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남 한센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원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내 한센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지원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의회는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 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센병 관리와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재정지원 등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한센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이용권 사업과 공공시설 이용 등 한센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센병은 나균(M. leprae)에 의한 피부와 말초신경 침해 만성전염성 면역 질환으로 결핵, 수두와 함께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현재 전남도내 한센인은 국립소득도 병원 465명, 정착마을 233명, 재가 340명 등 1,070명의 한센인이 전남에 거주하고 있다.

우승희 의원은 “한센병은 감염력이 매우 낮고 조기진단과 치료로 완치됨에도 불구하고 한센인들은 차별과 편견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조기 발견과 치료는 물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강원도의회 주대하 의원, 취약한 영북지역(속초, 고성, 인제, 양양) 의료인프라 획기적 개선

강원도의회 주대하 의원(속초 제1선거구)은 그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건강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영북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이 '강원도속초의료원'의 시설개선을 마친다는 결실을 맺으며 속초시를 비롯하여 고성·인제·양양군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주대하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2019년 속초의료원 소아 전용 병동(10병상) 개원을 통해 영유아의 돌봄 의료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설악지역 유일의 분만산부인과 폐쇄에 대응한 강원도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분만시설 조성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출산 후 산모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속초의료원 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이 어렵다는 지역사회의 호소에 따라 강원도청 및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을 적극 협의·설득하여 2022년 당초예산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접근이 어려웠던 '호스피스 병동(21병상)', '인공신장실(14병상)' 등 시설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시설로 요구되는 '응급실내 격리병상' 확충 등이 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강원도속초의료원이 명실상부 영북지역 대표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대하 의원은 '강원도속초의료원의 주요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그간 의료시설 부족

으로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영북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영북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 제7대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왔던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이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2022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속초시를 비롯하여 영북지역 주민들의 행복 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건 설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R

## round-up

### 종합

4 문화매일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서울시는 12월 10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주간사 한화건설)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잠실 민간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전시·컨벤션 및 야구장 등 스포츠·문화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업

무·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지난 '16년 4월 서울시는 국제업무 및 MICE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0월 최종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 이후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등의 승인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다.

금년 7월 제3차제안 재공고 이후,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의 평가위원회에서 개발구

상 및 설계·시공계획, 운영계획, 수익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서울시는 (가칭)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건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가칭)글로벌복합마이스(주간사 한국무역협회)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하여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협상단계부터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설계를 확정하는 후, '23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스마트모빌리티, K-뷰

티, 웰스케어 등 각종 신산업 전시, 공연, 국제회의 등 국제교류업무가 활성화되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천·한강 등 도심속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로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상시 사랑받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핵심 프로젝트로, 양질의 국제업무 인프라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영등포구,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와 '스마트메디컬 팸투어'

영등포구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글로벌 SNS 인플루언서 5명과 지난 11월 30일 의료관광 명소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국내·외 높은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SNS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온라인 콘텐츠화하여 영등포 의료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 전원엔 투어 시작 시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 유무와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받고, 투어 전 과정에 마스크 필수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했다.

투어의 첫 번째 일정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위치한 '의료관광 안내센터'였다. 참여자들은 상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혈액암, 발마사지, 인바디 등의 의료시설을 체험해보고 발전된 영등포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했다.

이후 한국의 대표 금융산업 중심지인 여의도로 이동해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협력기관 중 하나인 메리더트 호텔을 방문했다. 다양한 타입의 객실과 레스토랑, 수영장, 비즈니스 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최신식의 관광 숙박시설을 눈에 담았다.

다음으로 팜팜센터, 특수 검사실, 노안 백내장 센터 등 우수한 의료 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JC 빛소망안과외원을 방문해 영등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서비스 등을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대표 수변공원인 한강의 낭만을 맛볼 수 있는 이랜드크루즈를 찾아 유람선 시설을 이용해보며 탁 트인 영등포의 경관과 문화관광 자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투어에 참여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은 "이번 투어를 통해, 영등포구의 의료기관과 관광시설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느꼈다"며, "SNS를 통해 주변 외국인들에게 영등포구 의료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향후 각각의 인플루언서들이 팸투어를 통해 느끼고 경험한 바를 영상 또는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해 SNS매체에 업로드하며 영등포의 선진화된 의료관광자원을 국내외로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영등포의 손꼽히는 의료관광 명소로 일정을 조율했다"며, "SNS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으로 영등포의 풍부한 의료관광 자원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마포구, 연말 흥대 앞은 '예술의자', '확장현실(XR)아트'로 볼거리 풍성



마포구가 흥대 걷고싶은거리(서교동 348-40)에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예술의자'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마포 지역 화합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실시되는 이번 예술의자 전시는 'WELCOME to 흥대앞'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구민과 흥대 앞 상인을 위로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흥대 인근에 거주하거나 흥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전을 개최해 27개의 예술의자 작품을 선정했다.

27개의 작품은 작가의 무한한 상상을 이끌어내는 자유창작부분에

서 13점을 선정하고, 배고픈 학생의 식사공간이자 퇴근길 직장인의 휴식공간이 되어주는 편의점 의자를 꾸미는 모듈부분에서 14점을 선발했다.

형형 색색의 개성있는 예술의자 전시는 'WELCOME to 흥대앞'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구민과 흥대 앞 상인을 위로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됐다.

아울러 예술의자 전시 감상을 마치면, 공공미술에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을 적용한 LED 조형물과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감각을 풍경 형태로 제작한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다.

LED조형물은 'XRt Street ENTROPY'라는 이름으로 지난 11월에 설치됐으며, 조형물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인식하면, 빈 공간에 들어가 직접 만나며, QR코드 스캔을 통해 제작 과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오감 만족 예술품으로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또한 풍경 형태의 조형물인 '공간 산수'는 작품 안에 들어가 직접 만나며, QR코드 스캔을 통해 제작 과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오감 만족 예술품으로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전시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계와 지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기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순기자

## 강동구, "자연, 사람, 그리고 지역이 허브로 통하다"

강동구가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남로 지하보차도' (둔촌동 564-5) 내부 환경을 개선했다.

'동남로 지하보차도'는 강동구의 명소인 허브천문공원과 울해 새로 조성한 허브체험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산책 시 자주 이용하는 통로이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지저분한 벽화와 폐쇄적인 구조로 이용 시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동남로 지하보차도에 적용할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2점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지하보차도 내부 환경 개선 공사에 선정된 디자인을 반영하였다.

한쪽 벽면에는 허브천문공원, 그린웨이캠핑장 등 강동구의 명소를 알리는 그래픽이 렌터카를 방식으로 설치되어 양방향 각기 다른 이미지가 분절되거나 합쳐져서 보

행 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천장과 다른 한쪽 벽면에는 황도 12궁을 나타내는 12개의 별자리를 형상화한 조명과 별도양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터널에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또, 보차도 양측 입구에는 방문객들이 캠핑장 등 주변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안내사인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포장과 함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입구에는 CCTV도 설치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밝고 쾌적하게 개선된 '동남로 지하보차도'가 자연, 사람, 지역을 연결하는 즐거운 산책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 가까이 있는 어두운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 서울시, 소원분수가 반짝이는 천호공원 사계축제 '겨울이야기'

## 천호공원에서 빠른 일상회복 기원하며 따뜻한 연말연시 즐기는 비대면 행사 개최

서울시는 천호공원에서 따뜻한 겨울 감성을 즐기는 비대면 '겨울이야기' 행사를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이 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소원분수 포토존, 사행시 전시, 겨울빛축제, 온라인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소원분수 포토존은 천호공원의 음악분수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로 야외무대에 설치되며, 시민들은 반짝 반짝 빛나는 소원지에 새해 소망을 쓰고 직접 달아볼 수 있다. 소원 분수는 소원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과 눈송이, 선물상자, 농사람 등 아기자기한 장식품으로 꾸며져 겨울 추억 만들기에 좋다.

소원분수 포토존에서는 12월 18일 12시부터 16시까지 즉석사진 촬영 깜짝 이벤트도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행시 전시는 천호공원 사계축제 '가을소풍'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한

'천호공원 사행시 짓기' SNS 이벤트 당첨자를 전시하는 것으로 총 20여점을 연못 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지은 천호공원 사행시가 알록달록 말풍선 모양 속에 담겨져 참여자들의 재치있는 문장들을 엿볼 수 있다.

최근 깨끗하게 새단장한 천호공원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겨울빛축제도 함께 진행되어 낭만적인 연말연시 분위기를 제공한다.

진입광장에는 대형트리와 장미아치 은하수 터널 등이 연출되고, 주요 산책로 주변으로 감각적인 조명 포토존들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선사한다. 조명은 저녁6시부터 11시까지 점등될 예정이다.

온라인 SNS 이벤트는 <소원분수 체험 인증샷>과 <내 인생의 브금> 이벤트가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서울의공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소원분수 체험 인증샷>은 야외무대에 설치된 소원분수 포토존 제

험 인증샷을 지정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참여 완료 댓글을 달면 되고, <내 인생의 브금>은 천호공원에서 듣고 싶은 음악과 사연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별로 각각 50명씩 추첨하여 총 100명에게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내 인생의 브금에 당첨된 음악은 천호공원에 배경음악으로 송출하여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상세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서울의공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에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이번 겨울이야기 행사가 코로나19로 꿈꿨던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난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여가문화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25명 장아찌 450통 담가 취약계층에 나눔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한국생활개선 용인시연합회(회장 박선주) 소속 저장식품연구회원과 자원봉사단체연합회(회장 조혜영)임원 및 여성농업인 25명은 장아찌 450통을 담가 지역사회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아찌 반찬은 표고버섯·두부·계란장아찌 재료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직접 만든 천

연비누 2팩을 함께 넣어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요리강사를 초빙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통 장과 장아찌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다.

장아찌 세트를 전달받은 최모 어르신(90세)은 예쁜 쇼핑백을 선물꾸러미를 받아보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버섯, 계란장아찌를 받아들이고 요즘 입맛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늙은이를 위해 반찬

도 만들어주고 천연비누까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하시는데 감사했다.

한편 박선주회장은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장아찌 나눔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요즘 회원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행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하였다.

특히 연합회는 지난 5월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취약계층을 돕는 지역 돌봄 봉사 협약을 맺고 사랑의 쌀 머핀 나눔행사를 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혜영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는해 쌀 머핀 나눔행사를 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이웃에게 나눔을 전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통 장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음식을 보존하고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광명시, 내년 65세 이상 모든 노인 최대 16만원 버스 요금 지원

###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광명시는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8일 최종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노인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자치단체는 노인 교통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차별 없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전 노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광명시는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비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

며, 내년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연 16만원까지(분기 4만원 한도)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기존의 지하철 이용을 위해 발급했던 G-Pass카드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버스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 카드 재발급이 필요하다.

시는 농협 및 교통카드사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인 대중교통비를 빠른 시일 내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은 시내버스 요금 기준 연 100회 이상 이용 할 수 있어 광명시 노인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빨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capital area

수도권 I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안성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안성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의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안성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으로, 2020년 종합청렴도 2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과 같은 등급이나 외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하여 더욱 내실있는 등급으로 평가됐다.

비교대상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시) 75개소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없었으며, 2등급 30개소, 3등급 25개소, 4등급 12개소, 5등급 8개소로 안성시는 비교대상 중에서는 최상위 그룹에 속했다.

안성시는 취약분야에 대한 직무교육(보조급, 공공건설 인축 법적절차 매뉴얼, 계약 등)과 청렴교육(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등), 주기적인 청렴퀴즈 이벤트, 안성시 청렴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청렴정책으로 전 직원과 시민들의 '청렴 일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은 좀더 보완하여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개최

###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 개최

수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 건설 관련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신규 건설현장에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지역업체는 시공능력 및 신용도 향상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자생 노력 등 주도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현재 민간 대형 건설현장 98개소와 공공발주 건설현장 19개소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88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신규 건설현장관계자와 지역건설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평택시는 대형 민간 신규건설현장 관계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 등 지역건설관련 단체들이 참석하여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홍보하며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는 "평택시 관내 기술력이 충분히 입증된 건설한 지역업체가 많다"라고 홍보하며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협조 요청했으며,

동문건설(주) 등 대형건설공사 관계자들은 "향후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박석준 주택과장은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들이 공사초기에 업체선정이 이뤄지는 시기적인 필요성에 따라, 최근 신규로 공사에 착

## 화성시여성비전센터 2022년 1학기 교육 수강생 모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여성비전센터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1학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며, 12주 과정 총 113강좌를 개설해 1,087명을 모집한다. 분야는 뷰티, 실용, 홈페이지, 컴퓨터, 요리&제과제빵, 미술, 어학, 음악 등이다. 교육 장소는 모두누리센터(남양읍)과 유엔아이센터(병점동)의 강의실이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민 19세 이상 성인으로 우선접수 대상은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관외지역 거주자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다. 강좌 잔여석 공지는 24일에 모두누리센터와 유엔아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추가접수는 27일, 28일 이틀간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접수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모두누리센터(남양읍 시청로 155 B1층), 유엔아이센터(병점동 태안로 145 4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진행된다.

인터넷 접수 등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 시민 접

수 시작일 당일(13일)과 익일(14일), 타지역 거주자 접수일 당일(20일)과 익일(21일)은 오후 9시까지 접수 시간(18:00~19:00 저녁시간 제외)을 연장한다.

백신 접종증명자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완료증명서,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판정자(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되는 날 자정)를 제출해야 강의실 입장과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금번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두누리센터와 유엔아이센터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양시현/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 #새로운\_자치분권의\_시작

# #광고\_경기도의회\_신청사





###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의 생명은 자율성과 다양성”



염태영 시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미래형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 시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 ‘미래형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 네 번째 섹션’ 참여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의 생명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10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안성시 보개면)에서 ‘미래 SMART CITY(스마트 시티)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미래형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 네 번째 섹션’에서 “충분한 역할을 갖춘 기초지방정부를 더는 하나의 틀에서 가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미래형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에 참여한 8개시(수원·성남·안성·

오산·용인·이천·평택·화성시)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도시연합과 에어로케이항공(주)의 협약 체결, ‘미래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한 조대연 한국국토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저마다의 특색을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고, 때로는 이웃 지방 정부와 힘을 합해서 시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형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미래형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은 이날 에어로케이항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은 내년 1월부터 8개 도시 시민에게 국내선(청주-제주 노선) 운임(정가 기준)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7개

도시(성남·안성·용인·이천·평택·화성시)는 지난 6월 ‘미래형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구성하고, ‘통합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열린 스마트반도체 도시 서밋 7+1’에서 오산시는 8번째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미래형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은 정부의 ‘경기 남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이 포함된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맞춰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협력체계’다.

8개 도시는 도시연합 지역 내 반도체 관련 기업 지원 등 공동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정부 공동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고양시,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 개최

고양시가 지난 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방안과 그린뉴딜 정책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고양시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현숙 시의원과 윤용석 시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고양시정연구원 등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

경석 박사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필요성’ ▲고양시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과 윤용석 건축디자인과장의 ‘고양형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계획’ ▲고양시정연구원 임지열 박사의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안)’ 순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패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례 공유와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고양시만의 정책 제안도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녹색건축 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안양도시공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3년 연속 최상위권

안양도시공사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종합청렴도 8.84점을 기록하여 경기도 내 지방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내부청렴도에서 전체 지방 공사·공단 중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공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전 임·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자필 청렴표어 공모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퀴즈대회 등 다방면에서 청렴도 개선방안을 수립·운영해왔다.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 내 지방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감찰과 지속적인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Zero 공기업, 원칙적이고 투명한 최우수 공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최정부기자

### 오산시 11년 연속 전국 최고수준 청렴도시 평가

오산시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2등급) 등급을 받아 11년 연속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달성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올해부터 새롭게 반영한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오산시의 2021년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2등급을, 내부청렴도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았다. 올해 전국 75개 시(市)급 기초자치체 중 1등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고 등급이다. 이로

써 오산시는 2011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1등급 달성, 2013년·2014년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11년 연속으로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외부청렴도에서는 낮은 부패경험이, 내부청렴도에서는 전년과 같이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높은 등급을 견인했다. 시는 분청 감사를 위한 조직개편 이외에도 △엄격한 감사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 △부서순회 및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계약심사 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청렴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하며, “11년간 유지해온 청렴의 기치는 교육도시와 함께 오산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 하남시, 적정부지 검토 시민토론회 ‘시민에게 듣다’ 개최

하남시는 미사 중학교 중학교 신설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및 해법 마련을 위해 20일 저녁 8시 ‘시민에게 듣다’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미사지역 중학교 과밀 우려에 따른 중학교 신설과 관련, 검토중인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그간 검토 결과 공유에 이어 시민과의 토론·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미사 과밀학급 현황 ▲학교부지 검토 결과 정보공유 ▲중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부지 적정성 검토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시민 현장 참여단은 100명으로 제한하여 온라인 선착순 접수(포스터 QR 코드 접속)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하남시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청취 및 댓글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임무이나, 시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대변하여 마지막까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의 선택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고양시

# 사각관과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 정의로운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문화매일 조혜영 기자

주민과 소통의 기회!  
노후 담장 벽화그리기에 나서

몽개구름에 새가 날아 다니고 초목 잔디에 사랑을 듬뿍 담아 하트며 행운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그렸다. 해바라기는 풍수상으로 황금 노란색이 양의 기운을 뜻하여 많은 재물운과 행운을 뜻하기도 하며 해바라기의 씨앗은 번창이고 꽃잎은 사랑과 건강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란색은 금을 뜻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행운을 뜻하는 해바라기 그림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아침일찍부터 서둘러 벽화를 그리는데 바로 옆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은 방과후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바라보고 좋아했다.

최초 초등 4학년 학생은 "선생님 너무 예뻐요 저희들 보라고 그림을 그리시는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한참을 구경할 하며 인증샷을 찍고 즐거워했다.

잠시후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던 87세 이모 어르신은 지나가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며 "아이고 예뻐라 늙은이들을 보라고 낄씨도 주운데 그림을 그려줘서 고맙다"고 한참을 서서 바라보며 즐거워 하신다.

오며가며 환하게 양지7리의 고샅길 담장에 피어난 행운의 상징 해바라기를 보며 가보고 싶은 동네 고샅길이 되길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이미 정점을 지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다. 국가경쟁력 하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인구절벽'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내년 합계출산율은 0.81~0.83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추세가 2025년까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0.52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를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먹히지 않는다. 인구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9일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 2020~2070'에 따르면, 올해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175만 명으로 지난해 5,184만 명보다 9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상 첫 총인구의 감소이다. 여기에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도 기존 예측보다 8년이 앞당겨졌다. 2019년 특별 추계에서 우리 인구가 2028년 꼭짓점에 도달한 뒤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총인구 감소는 자연감소가 이미 지난해 3만여 명일 정도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어 총인구 감소로 작용했다.

지난 1월 3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51,829,023명으로, 전년도 51,849,861명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와 파장은 참으로 크고 엄청났다. 지난해 출생아는 275,815명으로 1년 전보다 10.65%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3.1% 늘어난 307,764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31,949명 많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인구절벽 너머 인구지진을 향해 계속 질주하는 인구재앙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우선 자연감소(출생아수 - 사망자수)가 계속돼 2020년 -3만 명에서 2030년 -10만 명, 2070년 -51만 명 수준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184만 명에서 올해를 시

인구절벽 너머 인구지진을 향해 계속 질주하는 인구재앙 두고만 볼 일인가?



박근종 칼럼

객원은설위원

작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안팎이 줄어든다. 향후 10년 단위로 추계해 보면 2030년에 5,120만 명, 2040년 5,019만 명, 2050년에 4,736만 명, 2060년엔 4,262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급감한다. 이런 결과를 기초로 추계한 인구성장률은 2021~2035년까지는 -0.1%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험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3,738만 명으로 72.1%였으나, 2030년 3,381만 명으로 66.03% 2070년이면 1,737만 명으로 46.1%까지 급락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인 2020년 815만 명으로 15.7%에서 2030년 1,306만 명으로 25.5%, 2070년 1,747만 명으로 46.4%까지 높아진다. 0~14세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인 2020년 631만 명으로 12.2%, 2030년 433만 명으로 8.5%, 2070년 282만 명으로 7.5%까지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유소년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가 늙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연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6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17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0년 21.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70년 100.6명 수준으로 2020년 대비 4.6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소년부양비는 2020년 16.9명에서 유소년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2032년 12.5명까지 낮아졌다가 증가하여 2070년 16.2명 수준으로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유소년 인

구까지 합치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최악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만 많아지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방증일뿐더러 그래서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협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국가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들게 된다. 지금처럼 육아 수당 등 재정을 살포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절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220조여 원을 투입하고, '3대 인구 리스크(인구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TF 1~3기를 가동해 종합적인 적용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출산율은 외려 뒷걸음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낮아진 혼인율과 그로 인한 저출생도 위험 요소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결혼한 신혼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18만4,000쌍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다. 이 중 무자녀 부부는 전체의 44.5%(41만 8,000쌍)으로,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한,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5.5%에 불과하다. 이 비중은 2015년 64.5%, 2016년 63.7%, 2017년 62.5%, 2018년 59.8%, 2019년 57.5%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결혼 1년 차 부부가 9.4%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로 불

리는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이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력 활용 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의 정책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며,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통해 4년간 약 9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분석·논의를 강화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참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극히 다행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란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풀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는 국가의 존망마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교육이나 복지, 주택 등 전 분야에 걸쳐 유언한 선제대응을 요구한다. 빨라진 인구재앙으로 결국 9년 뒤에는 경제성장률 0%대가 도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당장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재앙을 막으려면 결혼과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 환경을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공적 연금 수급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단편적 지원대책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다 시급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육아와 교육·주거 환경의 개선, 일자리 창출, 주택 마련 기회보장,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고령층의 복지 향상 등 기존 대책을 포함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그리고 촘촘히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실효성 높은 성장지향의 정교한 대책을 서둘러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SKY大 갈망 초,中,高생  
SKY大 쉽게 가는길!

SKY멘토스쿨

02-897-2050

1. SKY大 합격 준비는 초,中 때부터
2. 40년 전통 know-how로 시간, 돈 노력을 1/2로 절감하는 효율적 교육방법으로 SKY大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3. SKY大 가는 길은 잘 모르는 등산길과 같습니다. 유능한 유경험 멘토의 1:1 코칭으로 SKY大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 합니다.
4. SKY멘토스쿨 회원이면 별도 과외나 학원 갈 필요없습니다.
5. SKY멘토스쿨은 초,中,高 SKY大 합격만을 위한 또 다른 학교입니다.





# 경북도, 콘텐츠기업 원스톱 지원 나선다

## 10일, 포항에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경북도는 10일 오전 포항 북구 대신동 일원에서 콘텐츠 관련 기업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 거점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총사업비 110억원(국비 48, 도비 31, 포항시비 31)을 투입해 구. 선린병원(포항 복구)을 리모델링해 지상 10층, 연면적 3022㎡(914평) 규모로 조성했다. 주요시설은 입주기업 사무실 25개소, 촬영 스튜디오 2개소, 교육실 3개소, 전시실, 이벤트를 들이 있으며, 영상촬영장비, 3D스캐너,

프린터 등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장비가 구축돼 있다.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등 콘텐츠기업 원스톱 지원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세션 액셀러레이팅(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킹, 멘토링, 투자유치),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원센터에는 15개 콘텐츠 관련기업이 입주 완료했으며, 향후 10개 업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입주기업에게는 보증금(평당 10만원)과 임대료(평당

6000원)가 1~2년간 무상 지원되며, 최대 5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은 흥선 5인조 성악가로 구성된 '인칸토 솔리스트'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입주기업 홍보부스 관람, 테이프커팅, 감사패 수여, 크리스탈 및 퍼포먼스, 시설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역사·문화, 인물 등 우수한 스토리·콘텐츠가 산재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기업지원센터는 우수 콘텐츠 개발·제작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경북에서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K-콘텐츠가 꼭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봉기기자

# 경산시, 희망의 작은 불씨 "남천면 '희망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

경산시 남천면에서 9일, 남천면이장협의회 및 지역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22 나눔캠페인'의 첫 걸음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남천면이장협의회 회원들 전원이 사랑의 열매를 손수 가슴에 달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 나눔 캠페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천면이장협의회는 매년 성금을 전하며 이웃돕기에 앞장서 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돕기의 시작을 연다는 의미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쾌히 기탁하였다. 김상무 이장협의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기부한 성금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며 온정을 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천면 하도리경로당

최병수 총무도 "힘든 이웃들에게 전달했다면 좋겠다."며 쌀 10kg, 20포를 기탁하여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에 한규식 남천면장은 "기부에 동참해 주신 남천면이장협의회와 최병수 총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식지 않는 온기로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 현장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고,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경산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며 당부하였다.

한편, 본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정성혁기자

## 영양군, 정부합동(시군)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12월 10일 대회의실에서 한승환 부군수 주재로 국실과소장 및 부진지표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부합동(시군)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이번 보고회는 11월말 기준 실적 점검 및 부진 지표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남은 기간 부진 지표에 대한 실적을 높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표들에 대해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영양군은 실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표개선 건의, 부서 사전보고회, 부진지표 모니터링, 부서 방문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승환 부군수는 "올해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대외적인 영양군의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평가기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21년 정부합동(시군)평가 결과는 내년 4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영양군은 도약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세기기자

## 울릉군, 나물음식 시연회 개최

울릉군은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물음식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릉도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울릉도의 산나물, 해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준비한 메뉴의 품평과 앞으로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도한 나물관련 음식으로는 삼나물무침, 부지갱이무침, 고비나물무침, 긴잎돌김전, 더덕튀김, 뽕명이지 등이 있었으며, 특히 흥감자뽕, 물영근귀뚜마부추 만두 등은 새로운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 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슬로푸드울릉군지부 한귀숙 회장의 레시피설명과 함께 메뉴와 관련한 부연 이야기 설명이 있었다.

울릉군은 울릉도의 토속나물식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착수한 울릉도 생태 음식 문화 관련 공중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음식문화 기록화 사업과 문화 축제 개최 등 전통식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의 나물음식이 널리 홍보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함께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중기자

## 경주시,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주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13일~17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최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위해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338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대상이다.

노노케어·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취약계층지원 등 활동을 하며, 근무시간은 1일 3시간·월 30시간 이상으로 한달에 27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대상으로, 복지시설·보육시설·금융기관 등에서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며 한달에 6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대상이며, 근로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가 배분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나 자치단체의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은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경주시지회, 하나재가노인종합지원센터,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경주문화원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며,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길기자

## 2022 #캠성캠성 달력왔어흥~! 마카다안동 한정판 달력 이벤트 실시

안동시 공식 SNS '마카다 안동'에서 "캠성캠성 달력왔어흥" 이벤트를 실시한다.

"캠성캠성 달력왔어흥" 이벤트는 코시국으로 지친 서로를 격려하고 2022 힘찬 호랑이 기운으로 모두가 '흥'하길 기원하는 주제로, 이벤트 게시물에 새해 소원을 담아 'OOO 흥하라' 문구를 포함한 댓글을 달면 선정을 통해 안동시 SNS 홍보팀에서 제작한 2022년 마카다 안동 한정판 달력을 증정한다.

한정판 달력은 안동시 인스타그램 '마카다 안동'에 올린 안동 곳곳의 감성사진을 2022년 새해 달력으로 엮은 것으로, '마카다 안동' 인스타그램은 MZ 감성에 공감하는 사진 콘텐츠 중심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안동의 다양한 감성 사진을 담

고 있다.

이벤트 기간은 안동시 인스타그램 '마카다 안동'에서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참가자 중 총 50명을 선정해 달력을 증정한다.

지난 한 해 안동시 공식 SNS 채널에서 10여회 진행된 다양한 시장 이벤트에 이어, 새해는 예비문화도시 선정 등 대외적으로 가시화될 안동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 SNS는 시정홍보와 더불어 'SNS 민원 응대'는 물론, 각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재기발랄한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흐름에 발맞춰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메신저로 뻗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덕자기자



## 군위군,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2단계 상승한 '3등급' 달성



군위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 3등급을 받았다.

군은 올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 3등급을 기록해 지난해 종합 5등급에 비해 두 단계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7.68점으로 전년 대비 1.15점이 상승했으며, 특히 계약상대방,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을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분야에서 8.22점을 받아 전국 군단위 평균(8.01)보다도 0.21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발표되자마자 청렴 군위로의 재도약을 위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평가결과 분석과 요소별 부진원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올연초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쇄신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부패 ZERO!, 청렴도 UP!이란 슬로건 아래 2021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렴한 빈손 캠페인 △청렴 안 내문(서한문) 제도 △청렴송 △리틀이 청렴문자 알리미 제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공직사회 내외부의 청렴 결속을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군 관계자는 "청렴도 2단계 상승은 그간 반부패 청렴을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군정을 위해 청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 포항시, 영일만산단 환경문제 해소 위한 종합대책마련

포항시는 지난 10월 흥해읍 죽천리 죽천방파제 일대에 발생한 흰색 거품 및 침전물에 대해 원인 파악 및 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죽천방파제 인근 배수로에 흰색 거품 및 침전물이 발생했고, 해수를 사용해 물고기를 보관했을 때 폐사가 된다는 의견을 참고해 폐사어, 하천수(죽천리 방파제), 지하수(잠재성 특이도양), 침전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대구과학사 연구소 등에 성분 검사를 시행했고, 영일만산단 소재 폐수배출업소 6개소에 대해 경북도와 함께 합동점검(10월25일 ~ 11월2일)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폐사어에 중금속 및 독극물은 불검출됐고, 하천수(죽천리 방파제)에서도 중금속이 불검출됐으나, 지하수에서 카드뮴이 생활기준을 초과해 검출이 됐다.

이는 지하수(산성수)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을 통해 죽천리 해안가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공장방류수와 연관관계가 없고 산성수에 의한 토양내 중금속의 용출로 확인됐고, 해안가에 발생한 침전물은 영일만산단 지역 잠재성산성특이도양의 강한 산성수(pH3.3)와 생활하수, 공장방류수의 혼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산성특이도양은 신생대 시대의 퇴적층으로 영일만일대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표면이 노출되면 산화돼 pH3.5이하의 강산성반응을 일으켜 과거 청하 고현리, 송라 대전리, 장포동 마장지, 흥해 이인리 등 개발사업 이후 발생한 사례가 많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점검결과 3개 기업에서 1월 1일부터 기준이 적용된 물벼룩을 활용한 생태독성 검사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국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서는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에 의해 초과가 됐을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불합격보전법 규정에 따라 염에 의한 것인지, 염 외의 물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생산공정이나 원료의 변경, 추가 설비의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이 원천 저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포항시에서는 2022년부터 영일만산단 입주업체들의 공장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위해성 원인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잠재성특이산성수 및 유해물질의 유입 처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전광판 및 대기측정소를 신규 설치해 환경정보를 주민들에게 상시 제공하며, 영일만산단 입주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수질TMS 설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며, 추가로 영일만산단 입주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변지역 오염 방지 등 지역환경문제의 공동해결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항은 2019년 가동초기 몇차례 민원이 제기됐으나 이후에는 민원발생이 없고 시도의 지도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난 4월 포항과 유사한 충남 오창지역의 기업에 대해 현장 견학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인근 150m지점에 상가 등 공동아파트(5,000세대)가 위치하고 있으나 악취 등 환경민원 발생은 전혀 없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규중 환경정책과장은 "영일만 산업단지의 환경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저해하는 기업 활동은 있을 수 없는 사회적 윤리로서 투명하고 강력하게 환경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이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 금곡면 축산악취 민원현장 방문

지난 9일 마을 인근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진주시 금곡면 인담마을 소재 축산농가를 조규일 진주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설을 점검했다.

인담마을 주변에는 5개소의 축사가 산재해 한우를 비롯하여 돼지 28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인담마을 주민 125세대는 이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관련, 진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그동안 체감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축산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축산악취는 가축 사육시설의 장문 개방으로 축사 자체의 악취와 가축분뇨의 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저기압 또는 야간 등 기상여건에 따라 축사 인근의 마을로 확산되면서 발생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조규일 시장은 “축산농가는 주민들과 공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



록 축사의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진주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악취 저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축사 인근 마을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

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시설의 개선과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광용/기자

## 부산시, 올해 청년활동 참여 경험과 성과 공유의 장 마련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경험 공유회까지

### 부산청년센터 유튜브로

### 이월 생중계

부산시는 오는 10일 저녁 부산시청과 부산청년센터에서 (재)부산시 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2021 부산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교류회에는 올해 부산청년정책에 직접 참여한 청년 120여 명이 모여 부산청년센터, 청년두드림센터 등에서 진행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부산시청과 부산청년센터에서 동시에 열리는 교류회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며, 이월 생중계를 통해 각각의 장소에 모인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은 부산청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한다.

1부 활동 경과보고에 이어 2부에서는 참석한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부산청년정책 함께 교류회 ‘보이는 라디오, 한 해 어떻게 보였나요?’, 은·오프라인 참여자 모두를 위한 퀴즈 이벤트 등이 열린다.

그리고 3부에서는 부산청년센터와 평두에서 추진한 청년갑각 탐구생활, 청년주도 프로젝트, 청년리빙랩 참여 팀 간 활동 내용과 참여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청년정책 교류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부산청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교류회는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정책니즈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선된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문화매일 9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남해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남해군은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발굴대상자로는 동절기 한파, 계절형 실업, 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등이다.

남해군은 대상자의 위기상황에 맞춰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 연계와 다양한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정망을 적극 활용하여 발굴된 가구는 통합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충남 군수는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더 힘들 수 밖에 없다”며 “군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 지리산이 빛은 함양꽃감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 9일 첫 경매 이후 판매행사

### 이어가, 왕의 꽃감

### 기상여건 좋아 예년보다

### 품질 우수

함양군에서 생산된 ‘지리산 명품 함양꽃감’이 9일 오전 안의농협 서하지점 꽃감경매장에서 첫 경매를 시작으로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이날 초매식에는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군의회위원장, 김재웅 도의원, 생산자·중매인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명품 함양꽃감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길 기원했다.

함양꽃감은 지리산의 청명한 바람으로 자연 건조시켜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육질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 고종황제의 진상품으로 비쳤으며, 지금까지 그 명성과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꽃감이 생산되는 11월부터 12월까지 기상 여건이 좋아 예년보다 고품질의 꽃감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초매식은 개식선언에 이어 서춘수 군수 등 내빈들이 참여하는 성공기원제, 경매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매식을 시작으로 함양꽃감은 1월 20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13회 경매가 열려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며, 농협담당자 및 꽃감법인 임원들의 철저한 검수로 반식꽃감, 뽕은 꽃감, 병먹은 꽃감은 반입이 금지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꽃감은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더불어 “함양고종시 꽃감이 대한민국 명품 꽃감으로 인증 받고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꽃감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함양군은 이번 꽃감 초매식을 시작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제6회 함양고종시 꽃감축제’를 개최하여 함양꽃감 홍보 및 판매를 비롯해 체험행사, 농특산물 판매 등을 진행한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공략을 위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꽃감특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리산 명품 함양꽃감 홍보 및 판매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병철/기자

## 거창韓 이웃사랑 실천으로 연말분위기 물씬



거창군은 10일 BNK경남은행 거창지점에서 8백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00박스과 이불 70채, 거창유흥협회와 심재훈 가족이 아립1004운동 후원금으로 각각 1백만4천 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BNK경남은행 김정은 거창지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거창지점은 해마다 명절상품권, 김장김치와 냉난방용품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어, 거창유흥협회 배병록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회원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유흥협회는 2018년부터 매년 아립1004

운동에 동참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재훈 가족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립1004운동에 동참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심재훈 씨는 “자녀들과 함께 매월 일정한 액씩 1년 동안 적금한 금액으로 아립1004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가족이 모두 마음을 모아 함께 아립1004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심재훈 씨는 배우자 신수진 씨와 함께 거창을 대동리 일원에서 또래오래 치킨을 운영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따뜻한 온기가 관내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병철/기자

www.yyg.go.kr

#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볼 수 있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맛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점 대한민국의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믿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예실천사과**·아시아식 시원달콤 **영양배**  
피부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증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채소**·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밤**·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감귤**·맘으로 기른 **영양일닭**



# 전남도,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 만들어요

전남도, 17일까지 인권증진 문화행사...도민 인권 친화 문화 확산

전라남도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9일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 만들기를 다짐하는 '제3회 도민 인권 증진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9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권연극,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인권선언문 및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인권이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재규 전남도경찰청장, 전남도의회 박문욱 기획행정위원장과 강정희 보건복지

환경위원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 인권활동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각계각층의 도민 30여 명이 참여한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영상 촬영, 인권 증진 활동 유공자 표창 및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자 상장 수여,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을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한 인권증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누군가의 수많은 고귀

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값진 성과"라며 "다양한 인권 문제 논의의 통틀어 도민 스스로 올바른 인권의식을 확립해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도민은 "최근 신안에서 발생한 연전노예 문제나 여수 직업계고 고 홍정우 학생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화려한 발전 수준에 비해 구성원의 내면적 성숙은 부족함을 느꼈다"며 "전남도가 앞으로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 문화행사를 계기로



도민 인권이식 향상과 인권친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인권행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명안기자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

광양시는 산림청 공모 '2022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2019년부터 전국 1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신규로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유일하다.

이는 그동안 광양시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주요 탄소 흡수원인 숲 확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써 광양시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2030 탄소중립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4개년(22~25)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에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3년간 연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광양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바람길숲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며 대기오염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조성한다.

시는 도시 내에 맑은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 ▲바람 생성숲 ▲연결숲 ▲디딤숲·확산숲의 형태로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 내 흩어진 숲을 연결하는 선형의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유희공간, 도로와 하천, 공원·녹지공간을 적극 활용해 각종 공간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백운산, 구봉산, 가야산 등에서 생성된 신선한 바람을 도시 내 다양한 유형의 거점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권에 풀어놓을 계획이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산림화, 도시화로 인해 도심 내 오염물질의 확산과 정체,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도시숲 확대를 정주환경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광주광역시,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에 장초롱 씨 위촉



광주광역시는 10일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으로 장초롱(32) 퍼니라이프 대표를 위촉했다.

장초롱 총감독은 2021년 광주청년주간 행사 기간에 진행된 청년주간 총감독 선정 현장평가에서 전문가 및 청중 심사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으로 선정됐다.

장 총감독은 2022년 광주청년주간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홍보 등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장 총감독은 2016 광주물총축제, 2019 무등물총축제 등의 총감독을 맡아 활동한 바 있으며, 광주시 서구 청년정책참여단장,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지역 청년문화인력 발굴 및 AI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 타 행사와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기획 시간을 확보하고 청년 총감독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청년총감독을 미리 선정하기로 했다.

장 총감독은 그동안 쌓아온 문화·예술, 정책 영역의 포괄적 역량을 기

반으로 청년문화 교류와 정책 의제 발굴의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초롱 총감독은 "청년축제 기획학교 등 기존 진행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성과를 이룬 프로그램들은 유지 발전시키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 청년주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청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광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주간이 청년다움으로 각자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 대표 청년 문화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주간은 2015년 광주하이테크비즈니스아드 대회를 기념해 세계청년들이 함께하는 제1회 세계청년축제를 시작으로 2021년 광주청년주간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민회관 일원에서 문화공연, 포럼, 청년정책마켓,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김덕윤기자

## 완도 미래 밝힐 청년을 위한 공간 '완생' 문 열다!

완도군은 지난 9일 완도청년센터 '완생'의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완도청년센터 '완생'이라는 이름은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완도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완생' 1층에는 직원들의 사무 공간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2층에는 공유 오피스와 대화방,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인 소회의실 등을 갖추었다.

3층에는 행사, 공연, 교육 등을 위한 대회의실과 영상 시설을 구축했다.

완생은 완도군 청년이면 누구나 창업 및 활동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중 이용 공간은 대관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완생에서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청년 창업 역량 교육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

년 정책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도서로 형성된 지역 특성과 어번기 시기를 감안하여 온라인과 병행하여 개최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의 기념사, 전라남도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과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 '청년 희망 나무 달기' 퍼포먼스에는 완도군청년회 우민안 회장, 완도군청년발전협의회 이인창 위원장, 완도군바르게살기청년협의회 박경남 회장이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문화, 청년 참여 정책 지원 등의 바람을 행정에 전달했다.

김유술, 채민정 청년 작가가 제작한 '영상으로 만나, 완생과 청년'을 함께 시청하면서 청년센터 '완생'의 역할과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 김호진 씨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살기 좋은 완도가 되어 타지로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완생' 공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념사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 플랫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완생'이 모든 청년을 위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청년 주도의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완도군과 완생카페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 협약을 가졌다.

양영욱기자

## 여수시 경관계획...구상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 담아 그린다

2035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한 시민 경관디자인단 모집



여수시가 주민참여 경관정책 실현 및 구체화를 위해 수립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경관의 미래상을 그리는 '시민 경관디자인단'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수시 시민 경관디자인단'은 현재 재수립을 추진 중인 여수시 경관계획의 기본구상과 미래상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 간 온라인을 통한 사전교육, 총 4회의 워크숍 등을 수행한다. 여수시 우수 경관자원 지도 그리

기, 경관의 장·단점 찾기, 경관 아이디어 찾아보기 활동 등을 통해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시민이 경관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공청회가 유일했다.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의 초기단계인 경관 미래상 구상 단계부터 시민이 함께 참여해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시민 경관디자인단 활동은 의미가 더욱 크다.

참가신청은 경관에 관심이 있는 12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서

식을 내려 받아 오는 2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경관은 우리 시의 자연, 문화, 역사가 모두 담겨있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시민과 함께 경관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시민 경관디자인단을 시작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관정책 영역을 차근차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새단장

해남군이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대대적인 새단장에 나섰다.

군은 자연휴양림 내 20년 이상 된 낡은 숲속의 집, 숲속 놀이터, 캠핑장 등을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으로 바꾸고자 시설 보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도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화된 숲속의 집 14개 동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신축하고 있다.

1, 2차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재 1차 사업이 완료되어 숲속의 집 4개 동을 이번에 새롭게 오픈했다.

새로 문을 연 숲속의 집은 기존 2, 4인의 숙박시설을 6인용으로 넓게 조성했고, 소파와 가전제품 등 집기류도 최신시설로 설비했다. 1개동은 BF 인증을 받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조성됐다.

2차 사업인 숲속의 집 10개 동 신축은 이번 달에 착공,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숲속의 집 신축과 함께 숲속

놀이터, 캠핑장 등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1999년에 개장하여 매년 3만 명이 넘는 휴양객들이 찾고 있는 해남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지이다. 숙박시설(22개 객실)과 숲속 캠핑장(14개소),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운영하며 산림복합휴양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말까지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자에 한해 50% 할인된 가격에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양영욱기자



## 겨울 미식은 장흥에서 "굴·매생이로"

정남진 장흥에서는 겨울마다 밤상이 다채로워진다. 장흥에서 "겨울은 먹거리가 변변치 않다"라는 말은 전혀 틀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찬바람이 생생 불 무렵에야 제철 별미인 굴과 매생이를 맛볼 수 있어 장흥 사람들은 겨울을 손꼽아 기다린다.

장흥 굴은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장흥군 용산면 남포마을에서 활발하게 채취한다. 남포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따온 자연산 굴을 장차 불에 구워먹을 수 있어 입소문이 자자하게 난 곳이다. 이곳에서 채취한 굴은 향긋한 바다 내음을 자랑하며 감칠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특히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풍성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미식과 동시에 보양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해 활력 증진에 좋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굴과 함께 어께를 나란히 하는 겨울 별미로는 매생이를 꼽을 수 있다.

장흥군 대덕읍 내지마을에서 12월 중순부터 수확되는 찰매생이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찰매생이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숙취 및 스트레스 해소, 성인병 및 골다공증 예방, 아이들의 성장 촉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생굴과의 궁합도 뛰어나 함께 요리해 먹으면 제철에 먹을 수 있는 탁월한 보양식이 된다. 찰매생이로는 국·탕·전 등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장흥군은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진 대신 장흥 겨울 별미를 맛보고 간접적으로나마 장흥의 정취를 느껴 보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장흥의 '맛의 흥'을 즐기고, 코로나와 겨울 추위를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 군산시 방치된 폐철도, 도시바람길숲으로 재탄생!

도시바람길숲 대상지로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  
선정



군산시는 산림청 주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대상지로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이 선정돼 오는 2022년 실시설계 용역 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 철길숲은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 2.6km구간의 폐철도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역별 테마숲, 철길 가로숲, 락가든, 패밀리공원, 스카이포레스트존, 상징조형물 등 지역주민과 상권을 고려한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간 긴밀하고 활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선정됐으며, 더불어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철도관리공단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 제한 공모사업에 응모한 상태로 예산절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철길숲과 2022년 조성될 중앙광장 경관숲, 2019년 조성된 금암동 도시재생숲을 녹지축으로 연결해 지역문화 자원과 철길마을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숲길을 통해 어느곳이든 연결된 걷고 싶은 도시 군산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며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사업이다.

김현태/기자

# 익산의 미래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개최



익산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의 대표 '2030 정책기획단'이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제5기 2030 정책기획단'은 10일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정현을 시장, 정책기획단원, 전문가 심사위원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정 보완해왔던 2030 세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신선한 사업내용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으며, 직접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을 중심으로 발표에 이르기까지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하는 등 발표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심사는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맡아 발표 태도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제5기 2030 정책기획단'은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회의, 전체회의, 지원부서 자문·컨설팅 회의 등 아이디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사업·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익산형 3040 농촌협약, 교도소 탈출게임, 익산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방안, 세대통합형 점드락 놀이터 조성사업,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등 10여개의 신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7개월 동안 코로나19, 업무 등 어렵고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익산의 발전과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미래 익산 발전의 초석이 될 사업과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2030 공무원의 노력과 결실을 보며 익산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은 익산시 공무원 가운데 자발적 참여를 통해 2030 세대 멘티와 경험이 풍부한 4050 세대 멘토로 구성되는 학습 모임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년째 운영 중이다. 우수분과에 가운데 공무원여행 연수와 활동실적이 우수한 구성원에게는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있다.

이선수/기자



area

호남II

문화매일

11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남원수학체험센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수학 문화 대중화를 위해 남원에 건립하고 있는 수학체험센터의 명칭을 공모한다.

9일 남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남원수학체험센터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남원시 여현동 400번지에 설립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수학·과학·정보·진로 등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수학쉼터, 2층은 수학체험교실, 미래형 수학교실, 3층은 수학체험이동 교실, 과학축제, 진로체험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 등이 마련된다.

또 야외에는 수학과 더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대형 수학체험 교구를 비롯해 수학 산책길, 수학 쉼터 등이 조성된다.

이번 명칭 공모는 수학체험센터 설립 가치를 잘 드러내며,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제안 사유를 담은 공모제안서를 작성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운영지원위원회 사전 심의와 명칭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2일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놀며, 질문하고, 깨닫게 되는 수학 문화의 대중화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잘 나타내고, 학생과 시민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을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남원 현실에 맞는 '2050탄소중립' 시책 고민

12월 9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서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포럼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기후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관이 협력하는 탄소중립 실천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남원시 2050탄소중립 포럼에서 탄소중립실천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

남원시와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단장 임영란)이 주최한 2050탄소중립 포럼이 지난 9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특목별 위원장,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임영란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한광수 남원탄소중립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부와 민·관 탄소중립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정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다.

남원시는 작년 12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이후 전라북도 최초로 '2050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6년 연속 저탄소 생활실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포럼에 앞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탄소중립 시책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 감사하다"며 "남원시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공유와 이해가 이뤄진다면 우리 남원시가 전국적인 탄소중립 모델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제발표로는 김현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촌특목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의 '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어업의 미래', 장남정 전북연구원 연구원의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윤종철 남원시 환경과장의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이 각각 이뤄졌

다. 특히 윤종철 남원시 환경과장은 "남원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전북 14개 시·군 중 8위로 도로수송과 산업공정에서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남원시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 교통, 산림, 자원관리, 에너지, 농업·토지, 안전재난 등 6개 분야의 탄소중립 시책을 세웠으며,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남원시와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민교육△지역 에너지 강사 양성교육 △탄소흡수수급대식물 시범재배 △협동조합 설립 등의 민관협력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담양군, 관광지 곳곳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담양군에 설치된 화려한 대형트리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군과 담양산타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가 취소되는 아쉬움을 달래고 연말 크리스마스 감성을 만끽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포토존 및 트리를 관광지 곳곳에 설치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다린다고 10일 밝혔다.

죽녹원 앞 영산강문화공원은 핑크 리본과 문을 단 대형(5m) 트리를 설치했으며, 공원 전체에 다양한 분위기의 트리와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조성해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메타프로방스에는 빨간색 불꽃 선물상자로 꾸민 대형 트리와 눈

사람, 야간 경관조명 등이 이국적인 느낌의 건물들과 어우러져 마치 유럽에 온 듯한 풍경을 자아낸다.

아울러 원도심 곳곳에 농사람과 사슴, 야간 경관조명 등 다양한 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해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축제 취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더하고 관광객들이 담양을 방문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곳곳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 쉬고, 여유

# 남원에서 만나다

**남원시**  
| 남원에촌 |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찻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





# area 강원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 추천 최초

### 보안대체의사소통(AAC) 개발...마을 실험 주목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장벽을 허무는 마을 실험이 시작돼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춘천사회혁신센터 춘천소셜리빙랩으로 선정된 나빌레라팀은 최근 '쉬운 소통이 가져오는 쓸모있는 변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춘천에서 최초로 개발한 보안대체의사소통(AAC)을 통해 철전동 일대에서 환경변화 및 의사소통 보완 방법을 찾는 실험이다. 보안대체의사소통인 AAC는 보완(Alternative), 대체(Alternative), 소통(Communication)의 약자다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있어 크고 작은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보완하거나(augment) 대체적인(alternative) 방법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도와줘' '좋아' '잡아줘' 등의 표현을 그림으로 만들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서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회참여, 독립적 활동 수행, 학습활동 수행, 정서적 성장 등의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빌레라팀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나비소셜컴퍼니 소속 특수교육 전문가,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체육 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지역 사례 검토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전문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편의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춘천형 보완대체의사소통 메뉴판(3종) 및 매뉴얼(1종)을 만들었다.(별도 첨부 참고)

현재 개발된 AAC 매뉴얼 및 매뉴얼을 활용해 단계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철전동 일대 편의시설 3곳을 지정, 10월 중순~12월 1주까지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8개 그룹들이 개발된 제품들을 실제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후 2단계로 기관 및 돌봄센터 등 방문형 캠페인 데스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2단계 방문형 캠페인 데스크 운영 시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 함으로써 비장애인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나비소셜컴퍼니 관계자는 "추천 최초 보완대체의사소통 콘텐츠를 기반으로 마을에서 지역사회 '쉬운 소통'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방법들을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플라이강원 취항 2주년,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개를 펴다!

### 코로나19 상황 속, 양양/제주, 양양/대구 국내선 운항...누적탑승객 30만 명 돌파

플라이강원이 취항 2주년을 맞으며 다시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준비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서 하는 항공사로 강원도민의 큰 기대와 희망으로 2019년 11월 22일 출범했다. 이후 양양~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서울 김포, 대구 노선을 신설해 운항했다.

국제선은 2019년 12월 26일 대만 타이베이 첫 취항으로 이듬해 필리핀 클라카테를 열었다. 이후 대만 가오슝, 태국 방콕, 마카오, 일본 나리타, 중국 홍콩 노선으로 확대해 양양국제공항을 동북부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도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어 닥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플라이강원은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현재 제주, 대구 2개의 국내 노선만 운항 중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달 22일 취항 2주년을 맞은 플라이강원은 플라이강원만의 차별화된 사업모델인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 전략 다각화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수익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는 지난 10월 유상증자 참여로 150억 원 납입 완료를 마친 한편, 유상증자, 조정비 절감, 임직원 휴직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에 힘쓰며, 앞으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인바운드 항공 수요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취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7일 플라이강



원은 양양군, (주)아음, KB증권㈜, 마스틴투자운용(주)와 함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관광시설 개발 MOU를 체결했다. 총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 국제적인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및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공항 중, 양양국제공항이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플라이강원의 역할이 컸다.

플라이강원은 양양~제주 노선이 주 14회, 양양~대구 주 2회, 총 주 16회 운항으로 양양국제공항에서 가장 많은 비행 편수를 운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운항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을 꾸준히 운항하며 지난 5월 누적탑승객 20만 명 돌파에 이어, 7개월 만에 누적탑승객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플라이강원은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내년 설 연휴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개항을 예정함에 따라 국제선 운항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따라 최근 트래블버블 협정이 체결된 싱가포르를 비롯해 대만,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국제선 운항을

최만식/기자

## 삼척시,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삼척시가 시 전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우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161억원 포함 총 32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1차 100% 완료로 대하여 우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하장면, 미로면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

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267억 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하장면 387가구와 미로면 180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 추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총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확장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양호 시장은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도물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원"이라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등원/기자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도 연차별 시행 변경사항 및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적정성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2022년 연차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지역주민, 전문가, 협의체 위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년 대비 변경·폐지·신설사업과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현장복지'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고성' 목표 하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 한 4개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을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안)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협의체는 제5기 고성군지

역사회보장계획(23년~26년)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내 군민 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분석 및 지역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적 목표와 추진 전략,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안)을 2022년에 결정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내년 6월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함명준 공공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된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정선군 개최도시 확정 군민 대환영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 토마스 바흐, 이하 IOC) 집행위원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신창재, 이하 조직위)는 정선군(이하 군)을 포함한 강릉, 평창, 횡성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선군민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정선군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크게 반기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일정과 경기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2021년 12월 8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7개 종목 15개 경기, 81개 세부종목으로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9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대회가 개최된다. IOC와 조직

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종목별 개최장소는 정선(알파인 스키 및 모굴), 강릉(빙상 종목), 평창(노르디 및 슬라이딩 종목), 횡성(스노우보드 종목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역대 최다인 참가 선수가 이용할 선수촌은 정선 하이원 스키 리조트와 강릉-원주대학교로 결정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정선군민들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문화올림픽, 안전하고 행복한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열정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대회 개최시까지 남은 기간 동안 2018 평창동계올림

픽의 성공 개최의 노후를 바탕으로 청소년참여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제철 대책·교통·음식·숙박·문화행사·관광안내·안전·보건·장애인 편의·마케팅 등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정선군 개최 확정을 정선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올림픽을 통해 정선군과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 지표가 되길 희망하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정선군을 방문하는 만큼 청정지역 정선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산림바이오 연구협력 업무협약(MOU)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은 지난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와 '산림바이오 천연물 산업의 활성화 및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의 확보와 이용 기반 구축, 산업화를 위한 제품화 지원, 공동연구과제 발굴, 정보교류 등에 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은 KIST 천연물연구소, (주)푸기 중앙연구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 한림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자원을 통한 산업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북부권 산림바이오 연구와 산업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많은 바이오기업과 연계하여 산림자



원 천연물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은 지난 10월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30억 원) 규모의 산림청 공모사업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사업'에 선정되면서 산림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등원/기자

고성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 개최

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도 연차별 시행 변경사항 및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적정성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2022년 연차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지역주민, 전문가, 협의체 위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년 대비 변경·폐지·신설사업과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현장복지'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고성' 목표 하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 한 4개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을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안)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협의체는 제5기 고성군지

## 태백시 상장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동아리 연합 '김장봉사'활동 실시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4일 상장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동아리 연합으로 '김장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김장의 의미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에게 김장을 전달함으로써 관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봉사활동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추진됐다.

봉사활동에는 태백시청소년참여위원회 9명, 상장청소년운영위원회 4명, 상장청소년동아리 4명, 철암청소년운영위원회 6명 등 총 23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김장김치 40통을 직접 담갔다.

정성껏 담긴 김치는 청소년들이 직접 철암동행정복지센터로 전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

에 직결되는 만큼 마스크착용 및 틈틈이 손씻기, 손소독을 실시하며 방역활동을 준수하며 활동을 진행했다.

김한섭 관장은 "청소년들 본인이 직접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지역에 대해 더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관내에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줄어든 시기에 봉사활동의 의미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달된 김치는 철암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세나/기자

## 철원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2021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철원군 화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이후 화지마을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갈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2차 대면심사를 통해 강원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중 1호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훈 이사장은 "철원군청 건설도시과 도시재생 부서와 화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의 지원과 관심,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1년여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고 전했으며 "앞으로 향후 영커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다양한 시범사업과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조합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철원군수는 "이번 예비사

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크나큰 의미가 크며, 향후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마을정원, 마을카페, 마을시장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역사회 공헌과 경제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나/기자







충남 자살문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

자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충남도가 양승조 지사의 주재로 자살예방을 위한 발전적 대책을 논의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 지사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자살률 감소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이정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충남 자살특성 및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기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의 '자살위험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개선방안', 윤미경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의 '자살 고위험군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충남 지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1년(44.9명)에서 2017년(31.7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전국 평균 자살률과 비교하면 꾸준히 9명 가량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2018년 35.5명, 2019년 35.2명, 2020년 34.7명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정재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충남은 지난 10년간 전국 대비 1.8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전국 대비 1.6배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자살률은 2017년부터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충남은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 전부서가 연계협력하는 자살예방 협업과제 400여개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자살위험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특화 사업의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대책, 사업 수행 인력확보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경 부센터장도 "코로나19 이후 경제난 등으로 인한 자살률 급증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기존사업 인프라로 자살고위험군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고위험군, 알코올 중독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자살률을 꼽고, 이를 감소하기 위해 관심을 두고 관리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보다 실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도정과제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대전시, 신탄진로 인입철도 철거... 40년 주민숙원사업 해결

10일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기공식 개최



대전시, 신탄진로 인입철도 철거... 40년 주민숙원사업 해결

대전시는 10일 대전철도차량기술단(정비단) 운동장에서 국가철도공단 주최로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는 신탄진역에서 철도차량기술단까지 연결된 현 인입철도의 신탄진로 평면교차 구간을 철거하고, 회덕역에서 철도차량기술단까지 인입철도 2.5km를 신설(이설) 및 개량하는 사업이다.

기공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순순 시의회의장, 박영순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40년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축하했다.

이번에 철거되는 인입철도는 1979년 철도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철도차량기술단 진입을 위해 설치되었다. 설치이후 국도 17호선(신탄진로)과 평면교차로 인해 차량 운행 및 보행 불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또한 도심 구

간을 분할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2008년부터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17년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올해 총사업비 568억(국비 284억, 시비 284억) 확정 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이번에 인입철도 이설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이 날 기공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신탄진 인입철도로 인한 도로 정체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사업추진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위로와 감

사를 드리며, 본 이설공사 준공 전(2023년) 인입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로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는 2025년 준공예정인 신탄진로 주변의 차량 정체 해소 및 사고 예방 등 교통 및 생활 환경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는 인입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로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2023년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

충북도는 산림청 주최 '2021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 평가'에서 '괴산군 성불산 산림치유센터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된 산림치유센터(연면적 712.48㎡)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강측정실, 치유체험실, 식이실, 관리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 준공됐다.

괴산군 산림치유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의 효율적인 활용 노력과 목재의 설계 자유도를 키운 점 △기관에서 공공건축의 발주를 목구조로 하고 △구조 및 마감에서 사용된 목재를 100% 국산목재로 이용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산림청장상과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했으며,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롭고 지형에 맞는 목구조 설계를 통해목재의 가치 제고와 방문객의 심신치유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실내 모든 치유 공간을 목재를 활용했다.

김태은 산지관리팀장은 "목조건축 확대 및 국산목재 소비 촉진은 탄소중립 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분야이며 산림관광과 연계한 목구조 건물 활성화와 국산 목재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림청 평가에는 2021년 11월 기준 실시설계·시공된 공공건축물 중 목구조 반영된 건축물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을 포함한 15곳에서 응모했다.

심사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사로 진행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목조건축 계획·설계의 적정성, 목구조 비율, 독창성, 파급 효과, 노력도 및 홍보 등의 심사기준으로 최종 6개소가 선정됐다.

고정화기자

영동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능력 역시 '전국 최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7연속 및 3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영예'

충북 영동군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결과 7연속 우수 기관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하수도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환경부 주관의 '2021 전국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지자체 평가'에서 IV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 평가에서, 5만명 미만의 IV 그룹에서 7년 연속 우수 기관 및 2019년부터 3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하수도행정의 독보적인 행정력을 과시했다.

7년 연속 우수기관 및 3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영동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환경부장관상 상패와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우수사례와 신기술 등을 발굴해 자치단체간 서로 공유하며 하수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수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하수도정책·운영·서비스 등 3개 분야 32개 항목(200점 만점)을 엄격히 평가했다.

4그룹에 속한 영동군은 다른 지자체들과의 열띤 경쟁 결과, 하수처리

제이용률 및 공공하수도 자산관리 기반조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하수찌꺼기 재이용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응급상황시 빠른 대처를 위하여 상황별 QR코드를 활용한 프로세스 매뉴얼 구성하여 취약시간 발생될 환경오염 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시간대별 수량과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인공지능(AI)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프로그램인 일환인태양광 발전시설 300KW(740백만원) 설치 등 선진 하수처리시설 운영 체계 구축등이 타 지자체 보다 돋보였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7년 연속 및 3년 연속 하수도 분야 전국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신기술 도입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군의 노력이 앞찬 결실을 맺은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더 강화시켜 업무 수행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 여세를 모아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군의 노력과 새로운 시도들이 인정을 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선진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을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 영동을 만들어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화천 조경철 천문대 레너드 헤성 촬영 성공



km.오는 12일 지구 최근접 거리가 약 3,500만km인 점을 감안하면,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셈이다.

12일 이후 헤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져가는데, 지구인들이 다시 레너드 헤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려 7만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레너드 헤성이 촬영된 화천 조경철 천문대는 광덕산 정상, 해발

1,010m에 위치한 국내 최고(最) 시민천문대다.

주변 광해가 적어 별과 은하수의 최적 관측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전체관측이 포함된 관람프로그램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옥천군, 10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

옥천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옥천군은 2등급을 받아 2012년 1등급 달성 이후 10년 연속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달성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옥천군의 금번 종합청렴도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김재종 군수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부패사건은 0건을 기록하였다.

군은 매년 '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운영하였으며 주요 시책으로는 주민참여 감사위원과 부패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청탁금지 위반 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엄중한 내부감사 등 다양하게 추진한 청렴시책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취임 이후 공직자들의 청렴이야말로 지역 경제발전과 복지향상 못지않은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강조해왔다. 10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의 성과는 전 직원이 청렴 공직사회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옥천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 708개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현황을 진단하고 기관의 자발

적인 반부패를 독려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평가로써,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내부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고정화기자

천안흥타령쌀 대체품종 선발을 위한 식미평가 실시

천안시는 10일 오후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 천안흥타령쌀의 원료곡인 삼광벼를 대체할 새로운 품종 선발을 위한 '식미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미평가회는 흥타령쌀 지도자회와 RPC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품종 후보 밥맛을 최종적으로 검증받는 자리였다. 이날 소개된 품종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서 육종한 충남9호와 충남20호 품종이다.

시는 천안지형에 맞는 고품질 쌀을 천안흥타령 쌀의 원료곡으로 교체하기 위해 천안시농업기술센터(교장 이혁재)의 지도로 올해부터 충남9호와 충남20호 품종의 지역 내 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충남9호와 충남20호 수확한 쌀로 만든 밥의 모양과 윤기, 찰진정도, 씹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식미 감정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품종을 선정하고, 내년 12개 읍면지역과 2개 동지역에

서 추가 시험 재배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천안흥타령 쌀 수매 품종으로 보급 및 최고급 브랜드쌀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재용 천안시농업정책과장은 "고부가가치 쌀 생산을 위해 지역 특화벼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품질의 새 품종 천안흥타령쌀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2021년 영양군민상 수상자 선정

지역개발부문 장명호, 효행부문 임희숙, 문화체육부문故운석, 산업부문 정중수, 사회봉사부문 방원구, 기타부문 정호경 선정



지역개발부문 장명호, 효행부문 임희숙, 문화체육부문故운석, 산업부문 정중수, 사회봉사부문 방원구, 기타부문 정호경

### 여산초 정한솔 교사,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여산초등학교 정한솔 교사가 2021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하였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신나는 과학교육을 추진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경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교사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에 시작해서 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루어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에서는 전국에서 선정된 30명(초등 14명, 중등 16명)의 수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었고, 앞으로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정한솔 교사는 STEAM 선도학교 운영, 학교내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 학생 발명동아리 및 대회 지도, STEAM 연구회 활동, 연수 강사 및 자료 개발, 영재교육 강사 등 교내외에서 다양한 과학교육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왔다.

특히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봉사활동을 꾸준히 실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생활 속 문제 해결 중심의 과학교육과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한솔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과학 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승일/기자

### 담양군, 제9회 담양 송순문학상 수상자 선정

담양군 송순문학상운영위원회는 최근 후보작 심사회를 열고 제9회 송순문학상 제9회 담양송순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담양송순문학상은 면양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공모에는 총 50편(시 37, 소설 13)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대상(상금 2,000만 원)에 김나비 시인의 '소쇄원에서 쓰는 간찰(簡札)'이, 우수상(상금 1,000만 원)에 강대선 작가의 '오동들의 향기'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작인 시 '소쇄원에서 쓰는 간찰(簡札)'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수준과 안정적인 어법이 믿음을 주었으며 인문지리를 육화된 방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상투성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우수작 소설 '오동의 향기'는 송순의 사화가의 문헌자료 한 줄을 유려한 문장력과 탄탄한 이야기 구조로 직조해 내는 저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문순태 송순문학상운영위원장은 "담양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작품을 창작해 주신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담양만의 지역적 소재를 담은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영양군은 12월 9일 2021년 '영양군민상'에 지역개발부문 장명호, 효행부문 임희숙, 문화체육부문故운석, 산업부문 정중수, 사회봉사부문 방원구, 기타부문 정호경을 각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영양군민상'은 매년 영양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영양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이 선정된 바 있다.

먼저 '지역개발부문'의 장명호(58세) 수상자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장학 및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 인프라를 개선시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효행부문'의 임희숙(57세) 수상자는 80세가 넘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면서 경로 효친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힘든 병간호와 농사일에도 거동이 불편한 지역의 불우 노인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영양군의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문화체육부문'의故운석 수상자는 2007년 2월부터 영양군 유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 우승 5회 등을 이루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읍면대항 조기 축구 대회를 주관하여 군민의 단합과 체

력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부문'의 정중수(65세) 수상자는 2011년부터 입암면 연달리에 위치한 서석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 해설과 주변 관리 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3월 '시와들의 정원 서석지'라는 서적을 서술하여 지역 홍보와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였다.

'사회봉사부문'의 방원구(59세) 수상자는 석보면 포산리 복골 및 봉동토지를 군에 기부하여 도로 시설이 열악한 포산 마을에 주차장 및 여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8년부터 청송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용자들의 교화 활동에도 노력하는 등 사회봉사에 힘써왔다.

'기타부문'의 정호경(70세) 수상자는 마을에서 소외된 독거노인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마을 행사 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효선 자치행정과장은 "영양 군민의 긍지를 드높이신 분들이 군민상에 선정되어 기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대상' 수상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향상에 기여한 인물 선정 시상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기업기술지평평가협회'와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광역부문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정책 장려 등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정 의원은 심사단으로부터 농수산위원으로서 내년부터 시행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조례제정과 지급 추진에 발 벗고 나선 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시설의 하천 점용료 80%를 감면하는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동안의 도민복지 증진 의정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와,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정서 치유를 위한 서예문화 보급과 활성화, 경북도와 국제아동구조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간 업무협약으로 도내 11곳에 어린이놀이터 조성(22년 3곳 추가) 등 주민행복정책에도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성주 군민을 비롯한 경북 도민과 함께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아직도 남은 소임이 많아 임기를 마치는 날까

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길 의원은 경북도의원 3선 중진의원으로서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이번 의정대상에서 경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은 우수상을, 환경직 문화환경위원장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윤봉금/기자



## 오인철 충남도의원,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수상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의정대상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활동 우수의원에게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정책 장려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오인철 의원은 2018년 7월,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충남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상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률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수여한 것으로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닌다.

오 의원은 제10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지역경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활

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며 충청남도 의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오인철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며 "앞으로도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는 최선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근/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전남발전 공로 인정

전남도의회 차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진1, 더민주)이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행복 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지역발전 정책 장려 등의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차 위원장은 제11대 전남도의회에 임성해 현재 전남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최초 10조원 이상을 돌파한 2022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며 도정 전반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펼쳐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이 수상의 사유로 꼽혔다.



또한, 전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모자보건 조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도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입안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차 위원장은 "영예로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며, "정치를 시작하며 새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주

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번 수상 외에도 ▲한국공공정책학회의 대한민국 공공정책 대상, ▲(사)한국지역신문협회의 지구촌희망대상 의정대상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우수의정대상 ▲여의도정책연구원의 2018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등을 잇달아 수상한 바 있다.

김영만/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의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광역부문 최우수상 수상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공로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3차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 및 지역 활동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황진희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의정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황 의원은 임법정책위원으로서 도민의 삶에 유익이 되는 우수한 조례를 발굴·입안할 수 있도록 조례의 사후입법 평가 심의, 의원입법지원 우수부서 심의, 우수조례 선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의회 조례 중 2019년 7건, 2020년 8건의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이외에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019년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황진희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도민들께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주신 결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도민들의 곁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방발전 정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조혜영/기자



## 종영 앞둔 '해피니스' OST 마지막 주자 Jemma 확정!

'왓쳐'-'손 더 게스트' 김태성 음악감독 작업! 종영까지 2회만을 앞두고 있는 티빙 오리지널 '해피니스'(연출 안길호, 극본 한상운)의 마지막 OST 주자로 개성과 뮤지션 젤마(Jemma)가 확정됐다.

10일 '해피니스'의 OST 제작을 맡고 있는 Stone Music Entertainment는 "오는 11일 가수 젤마가 부른 세 번째 OST '이니그마'(ENIGMA)가 발매된다"고 밝혔다.

'이니그마'는 아포칼립스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곡으로 강렬하면서도 어두운 인상을 선사한다. 거칠고 도발적인 사운드와 주제를 다루는 실험 음악의 한 장르인 인더스트리얼 음악(Industrial Music)으로 '해피니스'의 극 중 분위기를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특히 드라마와 일체감을 형성하는 OST로, 지난 9화 엔딩에 삽입되어 시청자들에게 진한 몰입감까지 심어준 바 있다.

'이니그마'의 가창은 독보적인 음색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수 젤마가 맡았다.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감성으로 리스너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어둡지만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곡의 완성도를 더한다.

젤마는 엠넷 '보이스 코리아 2020' 출신으로 소울풀한 보이스컬러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tvN 15주년 특별기획 수목드라마 '멜랑콜리아' OST '올 아이 니드'(All I Need)를 부르는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니그마'의 작사, 작곡은 tvN '구미호전', '슬기로운 의사생활', JTBC '멜로가 체질' 등 인기 작품의 OST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 나이브(Naiv)가 맡았다.

젤마가 부른 '해피니스' OST Part 3 '이니그마'(ENIGMA)는 오는 11일 정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2일 정오에는, '해피니스'의 종영 아쉬움을 달래줄 스코어 음원 합본이 발매된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왓쳐', '손 더 게스트'를 비롯해 영화 '명량', '검은사제들', '극한직업' 등의 음악 작업에 참여한 김태성 음악 감독의 감성으로 완성된 '해피니스' 스코어 음원을 통해 드라마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티빙 오리지널 '해피니스'는 '청춘기록', 'WATCHER(왓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비밀의 숲' 등을 연출한 안길호 감독과 'WATCHER(왓쳐)', '굿 와이프', '스파이' 등을 집필한 한상운 작가가 유기투합한 작품으로 한효주, 박형식, 조우진, 이준혁, 박주희 등이 출연한다.

감염병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 고층을 일반 분양으로 저층을 임대주택으로 나눈 대도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계급 간 차별과 은근한 신경전을 그린 드라마로 매주 금, 토요일 밤 10시 40분 티빙과 tvN에서 공개된다.

최만식/기자



## 방탄소년단 '버터', 美·英 매체 선정 '올해의노래' 싹쓸이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가 '팝의 보고장' 미국·영국의 주요 음악 매체들로부터 '2021년 최고의 노래'로 선정되고 있다.

9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버터'는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음악 큐레이터들의 평가를 토대로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최고의 노래 50(Best Songs of 2021)'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닉 카터(Nik Carter)는 "'버터'는 간절하게 긴장을 풀고 춤추고 싶은 시기에 맞춰 발매된 곡으로, 방탄소년단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버터'는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노래 50'에서도 16위에 올랐다.

롤링스톤은 "'2021년 최고의 노래' 명단에는 인디 팝과 레게, 랩을 비롯해 K-팝, 록, 컨트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포함됐다"라며 "방탄소년단은 부드러운 비트와 눈부신 하모니, 코러스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팝 차트의 다른 곡들을 무색하게 한다"라고 전했다.

'버터'는 영국 음악 잡지 NME가 발표한 '올해 최고의 노래 50'에서도 10위에 랭크됐다. NME는 "방탄소년단은 팬데믹 첫 해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팝송들(다이너마이트) 등 지

정) 만드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팬데믹) 2년 차에 발표한 기본 좋은 서머송 '버터'로 가장 우월한 순간에 (듣는 이들의) 기본을 복돋웠다"라고 극찬했다.

지난달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Esquire)도 '올해 최고의 노래' 선정 명단에 '버터'를 포함시켰다. 에스콰이어는 "'버터'는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가득한 상황에 순수한 기쁨을 선사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서머송"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버터'는 미국 음악 매체 컨시퀀스 오브 사운드(Consequence of Sound)가 선정한 '올해의 노래 50'에서도 최정상에도 올랐다.

김효진/기자

### '탱키박스' 태연X키, 일일 포토그래퍼 변신!



'탱키박스' 태연과 키가 일일 포토그래퍼로 변신한다. 사진 찍기에 자신 있는 키는 인생사진 잘 찍는 족집게 강의를 펼쳐 시선을 사로잡는다.

10일 낮 12시에 공개된 wavve(웨이브)의 오리지널 웹 예능 '탱키박스' (제작 SM C&C STUDIO-wavve(웨이브), 연출 장은정 프로듀서 SM C&C 박지영)에서는 태연과 키가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꿀팁과 재미를 선사한다.

'탱키박스'는 소소한 질문부터 진지한 고민 상담까지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탱키 박스' 태연과 키, 두 사람이 시청자들의 고민을 친구처럼 공감해주며 진솔한 답변, 다양한 꿀팁 공유, 오늘의 탱키박스 아이템 선물 등 알찬 구성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날 태연과 키는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겨울나기 준비 토크로 포문을 연다. 두 사람은 소소하고도 진지한 질문들에 답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 최근 폭 빠진 최애 간식과 자주 쓰는 이모티콘 등 팬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준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던 태연은 갑작스런 대모사를 펼친다. 'SNL'의 화제 캐릭터 주지자를 완벽히 싱크로율로 따라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

'탱키박스'의 오늘의 주제는 '여행을 떠나오'로 여행 스타일부터 여행지 추천, 여행 룩 등 다양한 여행 꿀팁을 소개할 예정이다.

태연과 키는 즉석에서 시청자들을 위한 여행 계획표를 작성하며, '탱키 투어'를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의 취향이 돋보이는 여행 코스 정제는 무엇인지 이목이 쏠린다.

또한 태연과 키는 서로의 일일 포토그래퍼로 변신, 여행지에서 인생사진 촬영을 위한 '국룰' 비결들을 몸소 소개한다.

특히 키는 다른 사람을 찍어줄 때의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찍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팁을 알려주는 등 족집게 사진 강의를 선보인다.

반면 "진짜 사진 잘 찍고 싶다"고 열정을 보인 태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키의 사진을 찍어준다. 사진을 확인한 키는 "이건 진짜 못 살린다"며 포수를 터뜨려 과연 어떤 사진이 나왔는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방송 말미에는 '여행을 떠나오' 주제에 알맞은 '탱키박스 아이템'이 공개된다. 힐링과 럭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번 아이템의 지분을 걸고, 두 사람은 불꽃 튀는 미니 게임을 펼친다. 과연 치열한 명勝負를 끝낸 승자는 누구일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이처럼 태연과 키가 함께하는 wavve 오리지널 프로그램 '탱키박스'는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12시 다섯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 '신과 함께2' 이금희, 지코 'Artist' 특별 무대 선사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 이금희가 완벽한 발음과 리듬을 자랑하는 랩을 선보인다. 성시경은 등을 돌린 채 이금희의 무대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해 웃음을 자아낸다.

10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에서 랩퍼로 변신한 이금희가 지코의 'Artist' 특별 무대를 선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채널S의 네이버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선공개됐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케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박선영, 이용진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자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금희는 "랩을 준비했다"며 의욕을 불태웠다. 그는 가사까지 직접 준비해 오며 모범생 같은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더니 바로 반주에 맞춰 지코의 'Artist'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금희의 '열정 에너지'가 넘치는



폭풍 랩에 신난 신동엽과 박선영은 어깨춤을 덩실거렸고, 이용진은 "리듬감이 최고다", "발음이 엄청 좋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반면 성시경은 등을 돌린 채 이금희의 무대를 차마 보지 못했다. 그가 "진한 스님을 삼겹살집에서 만난 기분"이라고 민망한 모습을 보이자, 이

현유주/기자

## 임원희X김기방, 유승호와 24시간 꿀케미 예고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임원희와 김기방이 원칙주의 열혈 감찰 유승호와 24시간 꿀 케미를 자랑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귀차니즘' 소유 황가와 든든한 오른팔 몸종 춘개로 변신해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연모' 후속으로 오는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9일 열혈 감찰 남영(유승호 분)의 상극 부하 황가(임원희 분)와 오른팔 춘개(김기방 분)의 '꿀 케미' 스틸을 공개했다.

유승호가 연기하는 남영은 오직 정도만을 걷는 선비의 기개와 기품을 가진 인물이다. 과거시련을 위해 한양에 상경해 단번에 과거에 급제,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이 된다. 그런 남영의 곁에는 24시간 내내 그와 꿀 케미를 자랑할 황가와 춘개가 있다.

먼저 임원희가 연기하는 황가는 사헌부 소속 20년 경력의 노련한 소유이다. 그는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귀차니즘'의 대명사로 편하게 소유 생활을 하던 중, 열혈 충만한 감찰 남영이 상사로 부임하면서 애를 먹는다. 열혈 감찰과 귀차니즘 소유가 보여줄 극과 극 성향은 어떤 케미를 완성할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김기방이 분하는 춘개는 남영과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몸종이

다. 춘개는 주인 남영에게도 '불꽃 말대꾸'를 장차, 환장(?)의 티키타카를 자랑해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을 예정이다.

유승호와 꿀 케미를 보여줄 임원희, 김기방은 청춘 사극 '꽃 피면 달 생각하고'의 웃음 포인트를 확실하게 책임진다. 두 사람은 금주령의 시대, 거대한 파도 같은 사건 사고를 겪는 남영을 도우며 미소와 훈훈함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개된 사진에는 남영, 황가, 춘개로 완벽 변신한 유승호, 임원희, 김기방의 모습이 담겼다. 임원희는 웅성 없는 상사 남영 옆에서 괴로워하는 황가 그 자체인 모습을 자랑해 벌써 미소를 유발한다.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띤 김기방은 남영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춘개를 찰떡같이 소화하고 있어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오는 20일 첫 방송되는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과 술을 빚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여인의 '아슬아슬' 추격 로맨스다.

온라인 방송 영화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투자에 참여한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첫 방송과 동시에 웨이브에서 VOD(다시보기)를 통해 독점 공개된다.

최재은/기자

##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셀린 시아마' 감독 영화 '툼보이'

10일 밤 10시 30분 방송되는 TBS TV '무비컬렉션을'에서는 영화 '툼보이'를 방영한다.

2020년 개봉한 영화 '툼보이'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칸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유수의 시상식에서 굵직한 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셀린 시아마' 감독의 작품이다. 주인공 '로레' 역은 프랑스 배우 '조 허란'이 맡았다.

2011년 제작됐지만 관객들의 호응과 입소문에 힘입어 2020년 정식 개봉을 이뤄낸 영화이다. '툼보이'는 10살 아이 '로레'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차분하게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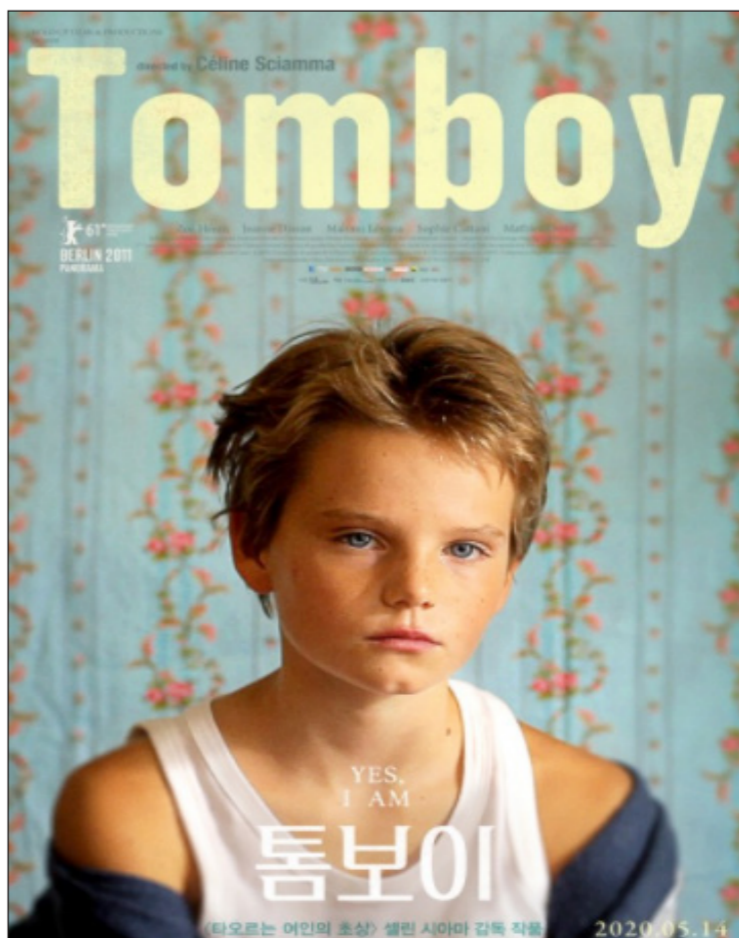
짧은 머리에 편한 티셔츠와 험렁한 바지를 좋아하는 로레는 이사 간 동네에서 자신을 '미카엘'이라고 소개한다. 남자아이 같은 '로레'의 걸모습에 동네 친구들 모두 '로레'를 남자라고 오해한다.

'로레'도 남자처럼 행동하며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수영도 즐긴다. 그러던 어느날 '로레'가 같이 놀던 남자아이 한 명을 때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를 계기로 '로레'의 진짜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다.

10살 아이의 성장기를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담아낸 보석 같은 영화, TBS가 강력 추천하는 영화 '툼보이'는 오늘(10일) 밤 10시 30분 TBS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TBS TV는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 문의)에서 방송된다.

김효진/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통과, 고성군 세수 2배 증가

고성군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배분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고성군은 청와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현 군수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보다 피해가 크지만, 지금까지 가장 적게 주장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무안군, 장애·탄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무안군은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장애항과 탄도항이 선정돼 국비 96억원, 지방비 41억원 등 사업비 13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해 올해까지 300곳 선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망운 장애항에는 3년간 92억원이 투입돼 선착장 신축, 물양장 확충, 복합어민 쉼터 신축, 마을진입로 정비 등 어업기반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망운 탄도항은 여객선 기항지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군은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연장, 부잔교 설치, 탄도항 대합실 신축 등 여객선 계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은 지금까지 2019년 신월항, 2020년 송현·영해·닭머리·도리포항, 2021년 월두항 등 6개항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 장애·탄도항까지 총 8개항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산 군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 마련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찾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겠다"며 "어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경상남도,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일어난 경남의 수출주역들 한자리에 모여

## ‘제27회 경남무역인 상 시상식’ 및 ‘제58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제27회 경남무역인 상 시상식 및 제58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경상남도도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는 10일 오후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호텔에서 ‘제27회 경남무역인 상 시상식’ 및 ‘제58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해 도내 수출기업과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박완수 국회의원(국회의원, 창원 의창구), 박준호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장, 노은식 경남기업협의회장, 최주철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무역인 상과 무역의 날 정부포상을 포함해

13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남무역인 상에 수출유공탑 6개사, 개인 표창 18개 등 24개의 상과 무역의 날 정부포상에 수출의 탑 84개사, 개인 표창 23개 등 107개의 상을 전수했다.

수출유공탑 부문에는 한국정상화성(주), 금호조짐, ㈜영진테크, 반도기전(주), ㈜이산글로벌바이오, ㈜정

우인더스트리 등 6개 기업이 수상했다.

김해시에 소재한 금호조짐(대표 김화규)은 레저용 낚시바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979년 창업 이후 일본에서 주로 생산하던 카본 재질의 바늘을 국내산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 개척에 노력해왔다.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여 수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유공자 부문에는 ㈜창원벤딩 이익재, ㈜케이이엔지 정원태, 켈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이정택, ㈜조이라이프 문수미, 케이피앤에스(주) 권민찬, 농업회사법인 뉴그린푸드(주) 구자길 씨가 상을 받았다.

수출유공기관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최주철, ㈜경남무역 김세하 씨가, 일자리창출 유공에는 주식회사 킷더허들 김태양, 농업회사법인 ㈜가교파워링푸드 윤금희 씨가 수상했다. ㈜무학 최재호 씨 등 8명은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수출의 탑 부문에는 해성디에스(주)가 4억불 탑을 수상하고, 3억불 탑은 한국경남대양유전(주), 2억불 탑은 ㈜제트에프삭스코리아, 1억불 탑에 디씨엠(주)가 수상했

다. 5천만불 탑은 ㈜케이디에이 등 4개 기업, 3천만불 탑은 ㈜멜콤인 터네셔널 등 4개 기업, 2천만불 탑은 태영산업 주식회사 등 8개 기업, 1천만불 탑은 ㈜무학 등 7개 기업 등 총 84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정부 개인표창에는 디씨엠(주) 정연택 씨가 금탑산업훈장, ㈜영동테크 윤찬현, ㈜태진다이에 김정만 씨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동진정공(주) 박태건 씨가, 국무총리표창은 신성철 타타크(주) 황성빈 씨 등 3명이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한국머신툴스(주) 한승배 씨 등 15명, 한국무역협회장표창은 켈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이근섭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단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우리 도는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며 미래 변화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광남/대기자

## 용인시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Aero-K와 항공권 할인 협약 전남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건의노력 결실

### 용인시, 청주-제주 항공권 상시 10% 할인 혜택

### 제공...535만 시민 혜택

### 내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성남·화성·안성·평택·이천·오산 등 8개 도시 시민들은 청주-제주 구간 Aero-K 항공 노선을 이용할 때 상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10일 안성시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8개 도시가 Aero-K 항공과 항공권 할인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준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염태준 이천시장, 김능식 오산 부시장(이상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강병호 Aero-K 대표이사, 신용구 청주공항장이 참석했다.

최광용/기자

협약에 따라 Aero-K 항공사는 이들 8개 도시 535만 시민들에게 청주-제주 구간 국내선 항공권을 정상운임 대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단, 탄력 할증이나 성수기 기간에는 5%의 할인이 적용되며 다른 할인운임과 함께 이중 적용하지는 않는다.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8개 도시는 각 도시의 시민들에게 항공사의 항공 할인 인센티브 제도와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들 8개 도시는 지난 6월24일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키고 백군기 용인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와 10월과 11월 화성과 이천에서 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 청주공항 이용 시 항공료 할인 혜택을 비롯해 별도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Aero-K 항공사와의 협약으로 내년부터 8개 도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

다”며 “아울러 오늘 행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뭉친 경기 남부 8개 도시가 더욱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반도체를 매개로 새로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을 추진하는 경기 남부권 도시들이 만든 연합체로 지난 11월 오산이 참여하면서 8개 도시 연합이 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각출한 예산을 재정으로 현 시의원들이 결집 형태의 공동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결 절차를 추진할 수 있어 빠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8개 도시 시장들은 협약식 이후 안성을 대표하는 ‘남사당배우덕이 품물단’의 남사당 놀이를 관람하고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미래 스마트 도시’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조혜영/기자

### 100%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연간 70억 추가 세수 확충

전라남도가 주도해 타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소로 고통받은 주민의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전남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 지역 화력발전세는 연간 7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4개소와 광양 2개소 등 화력발전소는 6개소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세 세율은 1kWh당 0.3

원으로 원자력발전 세율(1kWh당 1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지난해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한문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또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정은 “화력발전은 지역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고 있고,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떠안아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으로 재난 예방과 환경 보호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광명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 추진, 2,874호 주택 공급... 원도심 균형발전 박차

### 26,097㎡ 추가 편입, 2,506세대에서 2,874세대로 368세대 더 늘어나



광명시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경기도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광명7구역 등 경기도 내 3곳을 지정한 이후 기존 광명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검토, 지정요건, 공공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 확대 변경을 결정했다.

추가 편입지 규모는 26,097㎡로,

기존 93,694㎡에서 총 119,791㎡로 늘어났으며, 주택공급계획은 368세대가 늘어 기존 2,506세대에서 2,874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월 21일 광명7구역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 등에 대해 설명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 6월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 및 소하동 원도심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광명7구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및 광명7구역 인근의 광명8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GH가 선정됨에 따라 GH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을 비롯한 원도심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다수 주민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중간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충청남도, 화력발전세 ‘100% 인상’ 마침내 해냈다

### ‘1kWh 당 0.3→0.6원’

### 지방세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충청남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오른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봤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도내 화력발전소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조사·연구 △충남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시군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 △에너지 융합 및 구역 복합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이다.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석탄화력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질 보전 및 개선 △화력발전 환경오염도 조사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융합·복합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소수산업·연료전지 R&D 지원, 분산형 전원 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발전소 주변 환경 조사·개선 등 기후·환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와 220만 도민과 지역 국회의원, 도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피해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7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외부비용이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크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 따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

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해 각종 활동을 펼쳐왔다.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 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최정근/기자





## 전북도, 연말연시 공직윤리 특별점검

전북도가 연말연시에 느슨해지기 쉬운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공직윤리를 바로잡고자 특별감찰 활동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공직윤리 특별점검을 위한 공직감찰반을 꾸려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연말과 내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지방 의회 등에서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근무 기강 해이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등 18개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감찰 대상 기관을 5개 권역으로 나눈다. 감찰반도 5개반 27명으로 편성해 공직윤리 감찰 활동에 들어간다.

도 및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처리 지연 및 소극행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행위,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 훼손,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김승일/기자

특히, 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최근 부정적 언론 보도와 도의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 및 선거 중립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로서 복무기강 해이, 연말 선심성·남비성 예산집행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공직윤리 특별점검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기 상황에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윤리를 추스르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적발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11월 14개 시·군 감사·조사팀장 회의를 갖고 연말연시 공직윤리 강화 및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윤리 특별점검 계획을 시달렸다.

김승일/기자

## 영등포구, 어린이집 35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안심 보육에 '만전'

영등포구는 동절기 화재, 전기, 가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 2월까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자연재해 및 화재 사고에 대비하고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지난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 초까지 약 3개월 간 진행한다.

우선적으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의 시설 자체전수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표 내용에 따라 하절기 안전점검 미대상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35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동절기 재난(제설, 동파, 난방관리) 대응대책 관리 ▲시설물 및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준수 여부 ▲코로나19 방역 관리 ▲급식·위생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위법행위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마스크 의무 착용,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육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

로나19의 확산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어린이집 등 원·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구조 및 장치 관리 여부 ▲종합 보험 가입 관련 ▲운전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작은 부주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집 시설물과 통학버스,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밀양시, 문화도시 법정 지정을 위한 최종 점검

밀양시는 10일, 2021년 제3회 밀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호텔아리나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 갱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위원회 운영주체 변경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은 오는 21일 제3차 문화도시 최종발표회의 자료에 반영되며 문화도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윤정일 위원장은 “문화적 도전과

실험들을 통해 밀양의 좋은 변화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며 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다”라며, “햇살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시민을 만들고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발전에 밀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일호 시장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협력해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위원회와 지역자체, 시민들께 큰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밀양이 법정문화도시가 되어 시민들의 삶이 회복

남궁영기/기자

## 인천 강화군, 문화거점시설 '강화북부문화센터' 건립 현장 점검

강화군은 강화도 북부 지역에 거점 문화시설로 조성 중인 '강화북부문화센터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원호 군수는 10일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국·과장과 함께 '강화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시설물의 전반적인 시공상태, 편의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날 유 군수는 문화센터 내 이용객의 동선을 따라 승강기, 방송실, 냉난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보강할 것을 당부했다.

'강화북부문화센터 조성공사'는 양사면 인화리 869-15일대에 사업

비 18억7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492㎡,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커뮤니티실, 다목적 소공연장 등을 갖춘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 군민들이 근거리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연장에는 영화 상영, 전통소리 공연·전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 주민의 집회 공간과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군은 인근 지역을 전통소리 마을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균형잡힌 강화군 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부족한 문화·

김종남/기자

##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대상 '무기산' 불법 사용 합동 단속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내 김 양식장의 무기산(無機酸) 사용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 3,100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시, 화성시, 관할 수협 등이 참여해 매월 3회 이상 합동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 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큰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남곡, 화성 제부 공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

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 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양수산부의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고시에 적합한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활성처리제(유기산)를 안산·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해 총 6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조혜영/기자

## 포항시, 겨울철 야영장 안전·방역관리 실태 점검으로 이용객 안전 강화

### 야영장 단계적 일상회복

###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 준수 여부 점검 병행

포항시가 야영장 화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이용객 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이날 24일까지 야영장 36개소 중 시설이 취약해 사고 우려가 있는 클럽캠·카라반·일반야영장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클럽캠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의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경보

기·전용누전차단기·비상소전등 구비 여부 △클럽캠 천막의 방염성능 기준 충족여부 △텐트 내 적정 전기 용량 및 규정에 맞는 가스용기 사용 안내 여부 △야영장 내 폭죽, 풍등 등 화재위험 물품 판매 금지 여부 등이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야영장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여부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정진철 관광산업과장은 “겨울철 포항을 찾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 이번 점검을 하게 됐다”며, “야영장 사업자에게 미인증 전기제품 및 화기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점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노이/기자



## 정읍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 방역상황' 점검

### 신속한 예방접종과

### 추가접종-철저한 방역

### 수칙 준수 '당부'

정읍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자체 방역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는 전국 곳곳에서 7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정읍에도 하루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자 10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방역상황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내 유흥주점과 종교시설 등 30여 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담당하는 9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해당 부서장들은 종교시설과 식당, 카페 등 고위험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부서별 대응체계를 보고했다.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역 감염사례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 없는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장과 돌파 감염 등으로 무엇보다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상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PCR 검

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연말 각종 모임과 실내활동 증가, 환기 부족 등 겨울철 날씨 요인이 더해져 지역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패스 예방접종 의무화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출입자 수기 명부 단독 사용금지와 사적 모임 8인까지 제한 등 시민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역 패스 확대 시행 홍보물 18,000장과 예방접종 증명 방

법 홍보물 3,000장을 제작·배포하고, 시민 스스로 자율적인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천 문화운동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재난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관리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하은/기자



society

사회

문화매일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17

##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여성안심귀갓길 '별빛안심계단' 현장 점검 실시

성남시는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분당동 선지봉전원마을에 '별빛안심계단'을 조성하고 9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장 문경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별빛안심계단'은 마을 초입에 위치한 어둡고 노후된 계단을 보수와 미끄럼방지 시공과 더불어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여성과 아이들이 다니기 안전하고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나 이번 사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분당경찰서와 함께 직접 참여하여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함으로써 민·관·경과 더불어 관내업체의 지역사회공헌이 함께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남시는 이밖에도 2021년 서포터즈 합동점검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9개소에 플라표지병, 플라안내표지판, 쏘라벽부등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친환경적이면서 밝고 안전한 골목환경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통해 “다함께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용/기자

## 장수군, 연말연시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추진

장수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라북도 및 동물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및 적정처리(폐기 표시 등)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실시해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을 계도 하고, 위생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연말연시 축산물 점검을 통해 위해사고 사전에 방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차단으로 소비자가 축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오/기자





culture

문화

18 문화매일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 수원시립미술관 새 비전을 담은 4개관 신규 통합 MI 공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문화와 예술이 만드는 더 멋진 삶'이란 미술관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통합 신규 MI(Museum Identity)를 공개했다.

2015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개관한 수원시립미술관은 2018년 수원미술전시관과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을 편입, 2019년에는 아트스페이스 광교를 설립하여 현재 총 4개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신규 MI는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4개 공간의 브랜드 통일성을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됐다. 심벌은 '수원시립미술관'과 다채로운 색을 상징하는 삼각형·사각형·원형을 연결해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미술관의 본질과 역할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관별 기능과 기관의 통일성을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분관 명칭을 각각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어린이미술관 그리고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로 변경했다. 새롭게 제작된 MI는 건물의 사인류, 전시 포스터, 아트상품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 8월 신규 MI가 '세계 3대 산업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여 수원시의 디자인 역량이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수원시립미술관 김진엽 관장은 "이번에 공개된 신규 MI를 활용하여 4개관의 정체성을 통합하고, 수원시립미술관의 위상을 더욱 높여겠다."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 광양예술창고, 새로운 미디어전시회 선보여

광양시는 광양예술창고에서 미디어아트 작가 여섯 명이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12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이이남, 방우승, 정정주, 김상연, 정은하, 조대원 등이 참여하며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이 추진 중인 시민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탁월의 문화예술과정은 "디지털과 회화적인 요소가 결합한 새로운 전시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감상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광양예술창고 미디어영상실에서 상영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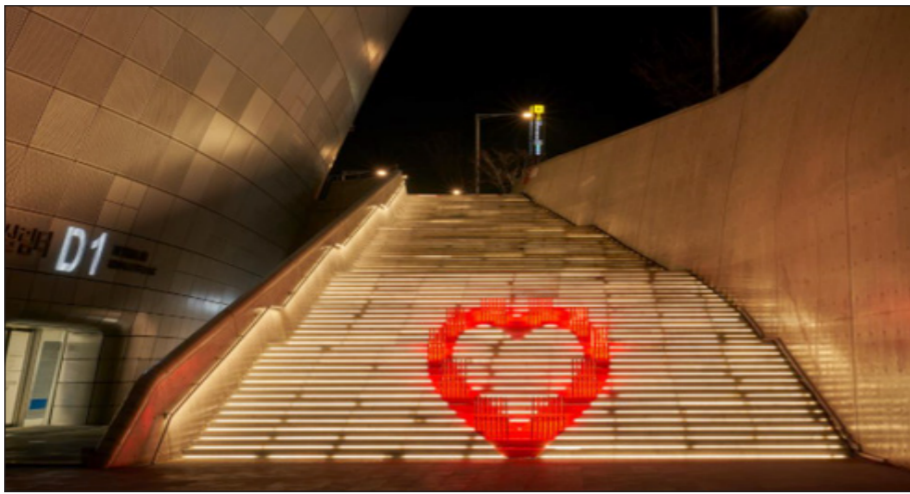
한편, 광양예술창고는 지난 3월 22일에 개관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디어 영상을 상영하며, 문화센터 공간 등을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조기석/기자



## 서울시, '2021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Plastic Vaccine) DDP 야간관광콘텐츠 재탄생

어울림마당 계단에 하트모양 바닥그림과 빨간색 벤치 설치, 밤엔 조명도...6개월간 전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마당 계단 한가운데 빨간색 하트모양의 바닥그림이 설치됐다. 하트를 따라 시민들이 오가며 잠시 쉴 수 있는 빨간색 벤치 10개도 생겼다. 밤이 되면 의자에 조명이 켜져 화려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작품은 서울시가 시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1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 '플라스틱 백신(Plastic Vaccine)'이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난 회

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자는 취지의 작품이다. 안전성, 내구성 등의 보완설계를 거쳐 DDP의 야간 관광콘텐츠로 재탄생했다. 12월10일부터 약 6개월 동안 전시된다.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2007년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올해는 '서울의 야간관광콘텐츠',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울시는 매년 겨울 DDP 외벽 전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라이트쇼인 '서울라이트(SEOUL LIGHT)'와 함께 시민들에게 빛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의 새로운 경험과 다채로운 서울의 야경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 따뜻한 연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밤, 서울의 빛'을 주제로 진행된 '2021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총 23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총 224점 중 활용성, 창작성, 조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작품들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상패를 수여하고 상금이 지급된다. '플라스틱 백신(Plastic Vaccine)'은 23점 중 활용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실물로 제작·설치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7월 한 달간 점수를 받은 결과, 일반부 201점, 학생부 23점 등 모두 224점이 출품됐다. 지난해 97점과 비교하면 127점이 증가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23점은 일반부 부문 총 19점(금상1, 은상1, 동상3, 장려6, 입선8), 학생부 부문 총 4점(장려1, 입선3)이다.

이주승의 '플라스틱 백신(Plastic Vaccine)'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했다. 파이프 형태로 나뉘어진 벤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자들의 시선과 동선을 차단하지 않으며, 계단 높이에 따라 사람들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작품이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온라인으로도 감상 가능하도록 작품집과 영상을 제작하여 24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부 금상에는 최명하의 'Shining terrace of DDP'가 선정됐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이어지는 기존 계단에 라이팅을 제안한 작품으로, 서울 도심에서 DDP로 들어오는 단순한 계단의 역할에서 라이팅 구조물이 더해져 전망대이자 쉼터로, 저녁에는 빛의 오브제로 서울의 야경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작품이다. 기존의 계단 역할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능과 의미를 더하고 DDP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상 수상작인 조현목의 'Bright Bloom'은 다양한 빛 반사 파라코드를 활용해 다채로운 야경을 자아내 관광객을 유도하는 아이디어 작품으로,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유기적인 공간과 닮은 작품이다. 강철 파이프 모뎀로 구성되어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여 작품의 실용성까지 갖춘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시작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875점의 작품이 수상했으며, 757점이 실물로 제작돼 박물관,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 서울시 공공장소 77개소에 설치됐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디자인의 중요도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맞추어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친 시민들에게 빛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이 따뜻한 연말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문화도시 강릉, "시나미, 마카, 모예!"

여유롭고 조화로운 시민 삶을 보여주는 '2021 강릉문화도시, 시나미' 개최

'2021 강릉문화도시, 시나미'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릉올림픽파크 하키센터 주경기장 2층에서 열린다.

"시나미, 마카, 모예!"의 슬로건을 가지고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율한해동안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강릉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시민·활동가·예술가·기획자가 한 자리에서 사업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전시행사도 구성된다.

이번 축제는 사전 예약 입장제를 도입하여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고, 대면을 최소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즐겁고도 안전한 시민 행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강릉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의 비전대로 '시나미(시나브로)'한 강릉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가 주를 이루며,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체험키트 증정 행사도 마련된다.

'2021 강릉문화도시, 시나미'는 동네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문화도시의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시나

미로, 마카로, 모예로 등 도로명 주소 활용해 공간을 재구성했으며, 시민들은 골목길을 여유롭게 거닐듯 문화도시 강릉의 오늘과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같은 장소에서 수준 높은 강릉의 공예·공방문화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특별전으로 공방도시 전시회가 마련되어 일상에서 빛나는 공방도시 강릉의 면모를 접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문 공예가의 작품으로 구성되는 '일상에서 빛나는 공예전', '공예가의 방' 전시와 더불어 지역 기반의 다양한 공예가들이 참여하는 '공방도시 산책' 전시가 함께 기획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또한 행사 기간 축제 방문자는 종합안내데스크에서 시나미페스트를 받아 전시장 곳곳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참여하며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스탬프 미션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제로웨이스트 키트 등 시나미꾸러미를 제공한다.

2021 강릉문화도시, 시나미 전시장 입장을 위해서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할 수 있

으며, 사전 예약 상황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와 PCR 코로나 음성 확인(24시간 이내 유효) 문자 제출자만(예약)접수 후 입장 가능하다.

이승원/기자



## 대구시, 시민 일상 회복 응원 DIMF 뮤지컬 콘서트 개최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방역패스 동시

적용으로 안전한 행사

도모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축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을 위해 준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12월 12일~13일 양일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동행, 다시 함께'라는 주제로 기획한 이번 콘서트는 2021년 DIMF를 빛낸 국내 최정상 뮤지컬배우와 차세대 뮤지컬스타들이 참여하며 전체 무료로 진행된다.

1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DIMF 뮤지컬스타 콘서트'는 지난 상반기 역대 최다 참가 기록(928명)을 수립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2021 뮤지컬스타 오디션의 우승자 김태희(국립전통예술중 2)를 비롯해 이재림(중앙대 2), 최혁준(홍익대 2) 등 차세대 스타 12명이 연기와 노래를 선보이고, 13일(월)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DIMF the Concert(딤프 더 콘

서트)'는 뮤지컬스타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배우 최정원, 마이클리, 민우혁, 음악감독 장소영이 선사하는 최고의 무대와 뮤지컬스타를 거쳐 데뷔한 대구 출신 신인배우 이유리, 김서연과 2021 뮤지컬스타가 참여하는 합동공연이 펼쳐져 관객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함과 동시에 한국뮤지컬을 이끌어 갈 차세대 스타들에게 멘토·선배배우 함께하는 소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한다.

DIMF의 15년간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양일간의 공연은 현장을 찾지 어려운 시민과 국내·외 뮤지컬팬을 위해 네이버 '공연 라이브'와 '쇼플 라이브'로 생중계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방역 수칙 강화에 따라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다. 모든 관람객의 접종 완료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며, 이외에도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객석 동반자 외 띄워맞기 시행으로 안전한 공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기에 개최되는 DIMF 콘서트가 시민들에게 따스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뮤지컬도시 대구와 DIMF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K-뮤지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채/기자

## 부산시 정관박물관, 비대면 교육 꾸러미 '딩동, 정관박물관입니다' 배부

부산시 정관박물관은 만 8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꾸러미 '딩동, 정관박물관입니다.'를 자체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꾸러미는 올해 정관박물관 어린이 특별기획전 '조우관 쓰고 만난 세계'와 연계 기획됐으며, 가정에서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가족과 함께 삼국시대 해외 교류 역사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익힐 수 있는 보드게임 '소두방 무영왕'이 들어있다. 게임판과 게임말·교역품카드·보물카드·우승카드·주사위 등의 게임 도구와 게임설명서가 전용 상자에 동봉돼 제공된다. 게임은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만큼 말을 이동시키고, 그 안에 있는 교역품 카드를 습득하면서 우승요건에 맞는 교역품 카드를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역품 카드에는 삼국시대에 서역·중국·일본 등과 주고받은 교역품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교육 꾸러미는 만 8세에서 11세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배부되며,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



터 정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가정당 1조씩 선착순 100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순서에 따라 12월 17일부터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된다.

한편, 교육 꾸러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12월 26일 까지 교육 꾸러미로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교육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교육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남궁영기/기자

## 고양시, 고양어린이박물관 점등식 개최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축제」를 운영하고 축제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을 개최했다.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축제」는 '빛'을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린이와 그 가족,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루미나리에 페스티벌이다.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점등식에는 고양어린이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 '와글TV'를 통해 약 2만 명의 어린이 가족 시청자가 참여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매직 크리에이터 니키의 마술 공연, 어린이 가족 응원 영상 공개가 이어졌다. 이재준 고양

시장도 산타 복장을 하고 등장했다.

어린이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우울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여건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려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고양시 수공예 작가들과 함께하는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마켓(매주 금~일요일 진행) ▲LED 크리스마스카드와 빠띠 목도리 등을 만드는 반짝반짝 메이커 프로그램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하는 '궁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영기/기자





# 2021 천년의 빛 영광 전국당구대회 개최

코로나19 뚫고 2년 만에  
전국단위 대회 열려



2021 천년의 빛 영광 전국당구대회가 오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사전경기(전남당구연맹회장배, 전남도지사배, 전국중별학생선수권 등)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장장 9일간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 및 보조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 주최하고 전라남도당구연맹과 영광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캐롬3쿠션 남녀 개인·3인단체전, 포켓9볼 혼합복식 등 8개 종목의 경기로 진행되며 전문 선수 500여 명, 동호인선수 1,200여 명 등 총 1,700여 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관심 가는 종목으로 3쿠션 남자 개인전 김행직, 최성원, 허정환, 이충복 등이 자웅을 겨루고 포켓 남자부 장문석, 정영화와 여자부 서서아, 임윤미 등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정부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회 참가일 기준 48

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백신접종완료자 포함) ▲무관중 경기 진행(다음 경기 참가자 관중석 대기) ▲출입자 2중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기장 공기순환기 상시 환기 및 출입문 수시 개방 등 철저한 방역 체계하에 치러진다.

군 관계자는 "영광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당구대회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에 오직 당구에 대한 열정만으로 대회를 참가해주신 선수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구대회는 빌리어즈 TV를 통해 오는 15일에서 18일까지 4일간 캐롬 3쿠션 남녀 개인전·3인단체전, 포켓9볼 혼합복식 경기가 생중계된다.

김영안/기자

## SSG 추신수, 2021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자로 선정

KBO 리그 첫 해, 야구 꿈나무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총 10억원 기부

KBO(총재 정지택)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가 공동 시상하는 2021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자로 SSG 추신수가 선정됐다.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은 선행에 앞장 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KBO 리그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제정됐다.

KBO 리그의 첫 시즌을 보낸 추신수는 2021년 연봉 27억원 중 1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하기로 하고 '드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단발성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린이들의 꿈을 장기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훈련 및 학습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신수는 모교인 수영초, 부산중, 부산고에 총 6억원의 야구 장학금을 전달했다. 해당 금액은 야구부 선수들의 장학금과 훈련시설 개선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SSG의 연고지인 인천 지역에서도 유소년 야구 선수들의 훈련 인프라 확충과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현유주/기자



sports

스포츠

문화매일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19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서안성체육센터 개관 기념식  
개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지난 4일 서안성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안성맞춤스포츠클럽 개관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9월에 개관한 서안성체육센터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백신패스 대상자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스포츠맨스 및 힙합댄스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김보라 안성시장의 기념사와 김문식 부회장의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사업 경과보고, 축사, 케이크 커팅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으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 시민들의 체육 복지와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성시 생활체육 발전을 이끄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선두주자로서 더 나은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2월 16일 창립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올해 9월 개관한 서안성체육센터를 위탁 운영 중이며,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 스포츠 지도자 육성, 엘리트 체육인 양성 등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영/기자

## 강원도, 2022년 전국체전 하계종목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강원도체육회는 2022년「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경기력 향상과 등위부상을 위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사업을 선수단 개별입금 지원방식에서 종목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직접 지원하였다.

그동안 하계종목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사업은 선수단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수단이 자유롭게 훈련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집행상황을 알 수 없기에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정산에 방해 요인이 되었다.

도체육회에서는 금년부터 참가 종목 단체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목에서 훈련 선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

와 실질적 필요 훈련용품(기구) 등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희구 회장은 "동계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비가 종목 단체의 직접 집행·정산 관리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용처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2월까지의 동계 훈련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통하여 선수단의 값진 땀방울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제103회 전국체육대회」하계종목 동계 강화훈련비는 39종목 1,000여 명이 1인당 20만원 을 기준으로 2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동원/기자

## 황인선 감독 "월드컵 갈망 가진 선수들과 함께 한다"

"월드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할 것이다."

황인선 감독은 여자 U-20 대표팀 선수들에게 목표 설정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자 U-20 대표팀은 6일부터 전북 남원시에서 소집 훈련을 갖고 있다.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소집 훈련은 지난날 파주NFC에서 진행된 1차 소집 훈련에 이어 2022 FIFA U-20 여자 월드컵을 대비한 2차 소집 훈련이다.

이번 소집 훈련에는 총 26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장유빈, 이다연(이상 대덕대), 박수정(포항여전고) 등 지난 1차 소집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부름을 받아 황인선 감독의 점검을 받고 있다. 8일 오후 훈련이 진행된 남원저점스포츠클럽에서 만난 황인선 감독은 "내년 8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대해 동기부여와 갈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과 생활에서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이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선 감독은 "시즌이 끝나고 소속팀 훈련이 쉬는 기간이라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부상 예방을 위해 조심스럽게 훈련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들간 수비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내일 연습경기(김천문성중)를 치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월 훈련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차 소집 훈련을 앞두고도 황인선 감독은 "국가대표로서의 행동과 생각을 심어주고,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차 소집 훈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월드컵을 위한 마음가짐과 성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 등 다섯 가지 문항에 선수들이 각자 답을 준비해 미



팅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는 활동도 준비했다. 선수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더 크고 높은 무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황인선 감독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선수들이 많은데, 선수들이 자라 대학생이 되면서 오히려 목표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월드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목표를 높이 잡고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모이지 못했던 만큼 빠르게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코치진 인선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1월 소집 훈련부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코치진과 팀워크를 다져갈 예정이다. 이번 소집 훈련에는 고현복 코치, 박윤정

현유주/기자

## 전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9일 개막

세계 1위 신진서 등  
일본·중국·대만 등  
최정상급 기사 대거 참가

전라남도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정상급 프로 바둑기사가 대거 참여하는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9일부터 4일간 영암군민회관, 신안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열린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전남이 배출한 김인, 조훈현, 이세돌로 이어지는 한국바둑 국수(國手)의 명성을 기리고, 전 세계에 바둑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대회로 올해 7회째다.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전라남도도와 전남교육청, 영암군, 신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프로와 아마추어, 청소년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세계 프로 최강전인 신진서, 박정환, 최정과 중국 판팅위, 일본 야마시타게이고, 대만 왕위안원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16명의 기사가 참가한다.

국내 프로대회에는 이창석 등 16명의 예선 통과자가 참가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아마추어 대회와 청소년 바둑대회에 5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한국바둑은 1989년 조훈현 9단의 응씨배 우승 이후 이창호 9단의 등장으로 정점에 달했다. 2012년까지 이세돌 9단의 활약으로 한국과 중국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3년부터 중국 기사들에게 밀려 세계대회에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침체를 겪었다.

최근 박정환 9단, 신진서 9단, 신민준 9단이 농심신라면배, 삼성화재배,

LG배, 춘란배 등에서 우승함으로써 한국바둑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번 대회가 한국바둑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인지 전 세계 바둑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9일 개막식에서 "바둑은 청소년이 집중력·사고력·판단력·창의력 증진 등 두뇌 개발과 학습 능력 향상, 침착성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바둑의 이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삶의 이치와 상통하는 측면이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이 교양과 목으로 배울 것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한국기원은 '국수산맥 온라인 바둑 대축제'를 진행해 프로기사와 함께 하는 바둑팬 참여 이벤트, 바둑퀴즈 등 SNS 이벤트, 전남도 주요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 프로기사가 들려주는 바둑이야기, 국수산맥 프로대회 온라인 중계, 국수산맥배 명국 소개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안/기자



## KLPGA, 군산시와 업무 협약 체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12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LPGA와 군산시는 골프 대회 개최와 꿈나무 육성을 통해 여자프로골프 발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하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임준 군산 시장과 강춘자 KLPGA 대표이사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군산시 김임준 시장은 "이번 협력이 여자프로골프의 발전은 물론 군산시의 꿈나무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군산시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KLPGA 강춘자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골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군산시와 협업하게 되어 무척 기쁘며, 상호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 오는 12월 18일(목)부터 이틀간 'KLPGA BOB 챔피언스 클래식 with 군산시'가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며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개의 국제 및 전국 스포

츠대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KLPGA는 2014년부터 정규투어를 비롯해 드림투어, 챔피언스투어, 점프투어, 아마추어 대회를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하는 등 국내 여자 프로골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현태/기자

## 전국유소년클럽축구 왕중왕 고성서 가리자

고성군은 오는 12월 4일, 5일 양일간 고성군스포츠타운에서 '제1회 KYFA컵 전국유소년축구클럽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유소년축구협회(회장 김명우)가 주최·주관하며, 올해 경북 예천, 경북 김천, 강원 고성, 강원 영월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유소년축구클럽팀 55개 팀이 토너먼트를 통해 연례왕 중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회 개최 승인을 받고 개최되며,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선수단별 등록선수 외 10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음성 확인 및 백신 접종완료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소년축구선수대회가 줄어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키운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11월 제10회 고성공공컴퓨터K리그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며 유소년 축구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혁신도시 완성은 공공기관 '내포' 이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6년 동안 지방의회에 몸담았다. 1995년 제2대 당진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2006년 6대까지 5선 의원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10대·11대 충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7월에는 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26년간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당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했다”며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깨끗하고 정직하게 의정 활동을 해온 것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처럼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정된다. 한 참가자는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전익현 제1부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공휘·김연·김기서 의원,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황인명 충남교육청 예산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도약하는 충남... "공공기관 내포신도시로 이전해야"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7월 서천갯벌이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또 충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산공항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해저터널도 지난 달 개통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환경해권 도약을 위한 결경사가 여럿 찾아왔다”며 “충남도의회는 내포권역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하게 된다”며 “약 1조3489억 원 증액된 13조615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장은 “오늘 논의된 합리적 고견들은 도민 실생활과 부합한 건전한 자치행정 정립에 단초가 될 것”이라며 “220만 도민과 소통해 꼭 필요한 재정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예산을 심의해 내실 있는 도정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가 양 기관에 대한 예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재정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도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



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충남도가 9조380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보호, 일상생활 영위, 소비심리 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우울'로 불릴 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는 사람들이 많다. 감염병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등을 보듬기 위한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 지

출에 대한 단순한 사전 검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전한 일상을 지켜내고자 하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6년 동안 의회에 몸담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꼽았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5km 내 거주하는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충남 서부지역은 석탄 수량이 용이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특징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대기환경 오염으로 피해를 겪고 있고 특히 영아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영아들에게 아무런 지원이 없어 조려를 발의했다"며 "국가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부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 조직은 매우 비대해지고 사업도 다양해졌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위상과 조직, 제도는 아직도 과거

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선 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각계각층의 시각에서 충남도의 시대적 과제와 재정여건 등을 짚어보고, 도민의 삶의 질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했다"며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재정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도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Yangju**  
양주시